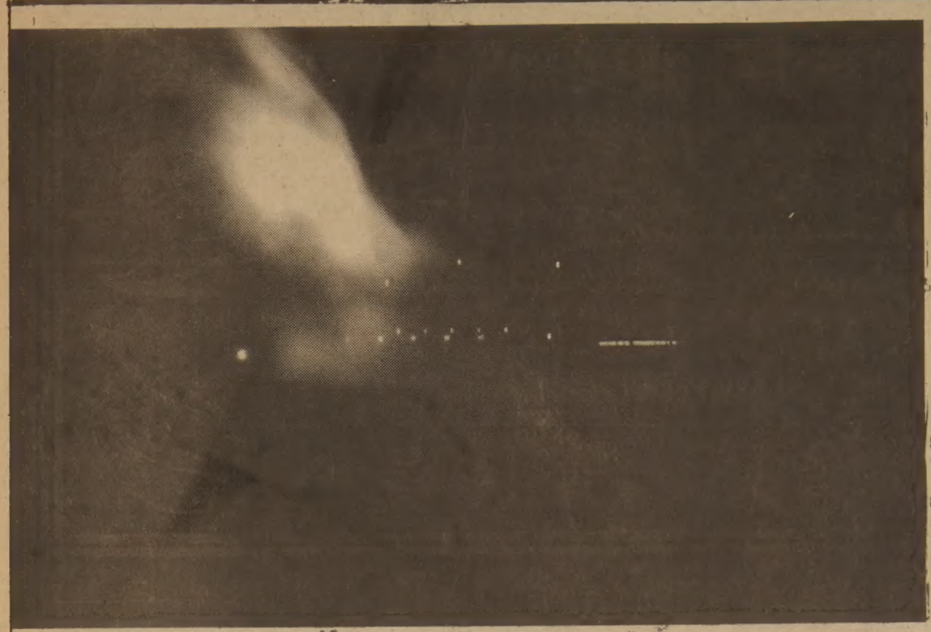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9 1981

— 1 —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일간) No. 629 1981년9월2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September 26, 1981



제6회 사진촬영대회 ②
〈1 등〉「나이아가라 야경」(칼라)
원 용 설

단조로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것같고. 깊이가 있는듯 것같으면서도 단조로우며 한없이 말려 들어가려는듯 한 미지(未知)의 수심. 그리고 통일된 색조 위에 한 마리의 갈매기가 이 작품을 격상(格上)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은 별로 흠잡을 데는 없으나 지나치게 무난한 작품이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맛의 여운이 남는다.

이 인 덕
한인사진협회장

경찰관이 자기총에 피살
범인 중상, 순경 권총 뺏아 난동

경찰관 1명이 또 피살됐다. 동료경찰관 1명은 손에 총상을 입었으며, 경찰관을 쏴죽인 범인은 급거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피격된 후 체포됐다. 23일 밤9시경 난동신고를 받고 토론토시내 시밍톤가 2층집에 달려간 퍼시·커밍스 순경(38)은난동자 데스몬드·퍼트(21)를 체포하려는 순간 퍼트가 쏜 총에 목을 맞아 사망했다. 퍼트는 커밍스 순경의 권총집에서 38밀리 권총을 빼아내 커밍스를 쏘고, 함께 온 동료순경 마이클·존스의 손을 쏴 부상을 입혔다.

◇피살된 커밍스 순경

이 순간 현장에 도착한 거스·하틀 순경은 퍼트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발사, 그의 무차별 난동을 막았다.

커밍스 순경은 50분후 세인트·조셉 병원 수술대에서 숨졌다.

경찰이 시밍톤가에 갔을때, 주인과 전세자는 퍼트의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토론토에서 경찰관이 순직한 것은 작년3월 강도를 잡으려다 피살된 마이클·스윗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국은 범인이 순경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 순경을 쏴죽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밝히고, 첫번째 사건때 권총집을 개조했으나 이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됐다는 의견을 표했다.

중남미 바베이도스 출신의 커밍스는 11년전 토론토경찰에 투신, 곧 경사로 승진될 예정이었으며, 이번주 휴가에서 돌아왔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병상 구속된 범인 퍼트는 1급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과 병원에 달려온 아크로이드 시경찰국장은 "수술실 옆방에서 수술결과를 기다리는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일은 정말 괴로왔다"고 말했다.

이란 피의 숙청 계속
사다르 이란정권 "신파시즘"으로 규탄

전 이란대통령 바니·사다르는 지난주 현 이란 집권층이 또 2백명이상의 정적을 사형집행한데 격분이 들을「새로운 파시즘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적어도 42명의 좌익분자들이 처형되고 이들중 2명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을 당했다고최근 이란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개월동안 천여명이 처형당한중 처음으로 공식보도 되는것이다.

바니·사다르는 파리근교 망명자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온 세계에있는「무슬림」교도에게 이란의 회교성직자 정권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는 이와같은 무분별한 형집행은 이슬람교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새로운 파시즘에 대한 이란국민의 저항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바니·사다르와 함께 파리로 망명한 극렬 무슬림 「무자히딘」 게릴라 지도자 맛소우드·라자비와 같이 발표한 성명서에서자기의 추종자들은 앞으로 가일층 테헤란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히딘」단원들은 피에 굶주린 코메히니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데모와 파업을 선동하고 정부협조자들을 살해하는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라자비는 밝혔다.

지난 3개월동안 이란에서 처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자히딘」 단원들이거나 동조자였다.

올해 한국에豊作
平年作보다 8.5%증산

〈서울-UPI〉농수산부는 21일 올미국수확량이 평년작보다 8.5%나 웃도는 5백50만톤이 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벼가 한창때는 8,9월의 좋은 날씨 탓에 갑자기 기후조건이 악화되지 않는한 풍작을 이룰것이라고 밝혔다.

1弗짜리 옵세트인쇄

〈워싱턴-AP〉 연방조폐당국은 지폐인쇄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앞으로 1달러 지폐의 뒷면은 옵세트인쇄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탑승권을 발매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사업상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승객들이 날로 상승하는 비행기요금으로 고심하는것을 방지하고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5년에서 일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탑승권「A-AIRPASS」을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A-AIRPASS」는 사용지간에 따라 그가격이 1만9천달러내지 25만달러에 달한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社 告

全美洲 교포청조년 文藝콩쿨
중고대생중심 국·영문작품 모집·표창
조국애고취내용, 장원 2명선정, 모국관광 부상

북미교포청소년의 조국애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본보는 전 미주 청소년 문예콩쿨을 주최하여 조국과의유대를 높이기로 했읍니다.

미주내의 중·고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참여도환영하는 청소년 백일장은주미한국대사관, LA한국문화원,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하고 있읍니다.

이 백일장에 제출하는작품은 시사채 수필문으로서 재북미 동포사회의 애국심고취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갖는 주제이면 어느 작품도 환영합니다.

작품은 한글이나 영어중 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는 한글일 경우, 타자지 10매이내, 영문일 경우 5매이내로 하면 됩니다.

전미주 규모로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문예콩쿨참가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작품에 대해 장원, 우수상, 가작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니다.

제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2명은 장원으로 선정, 문공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6박7일동안 본국 관광을 제공 합니다.

그리고 우수상 3명과 가작 수편을 선정, 상패와에달로 노력을 높이 평가 합니다.

이번 청소년문예 콩쿨에 제출한 작품은 본사에서 오는 9월30일(수)까지 마감하며 당선작 발표는 10월22일 지면을 통해 공고합니다.

미주속의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란 긍지를 높여주는 청소년문예콩쿨에 교포여러분의 성원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각지사 접수, 9월30일마감, 10월22일 발표

터키 戰鬪機추락 慘事
나토 기동훈련중 地上軍밀집지역 추락
조종사·지상병력등 1백여명이 떼죽음

〈앙카라-AP〉 터키공군 소속 F-104제트전투기 1대가 22일 북대서양 동맹기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던 터키 지상군부대에 추락하여 전투기를 몰고 있던 조종사와 지상군 약1백명이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는 이날 정오께 갑자기 검은연기를 뿜으며 급강하하기 시작하여 지상군집결지에 떨어졌다.

아직 터키공군이나 정부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발표도 없으나 현장목격자들은 사고기가 군사집결장중심부에 떨어졌으며 수많은 군인들이 현장에서 새까맣게 타죽었다고 말했다.

釜山~LA 兩市교류
釜山大-UCLA도 자매결연

부산시(시장·김무연)는 자매도시인 L.A와 도시개발연구, 동서양문화교류를 비롯, 상공인교환방문등으로 양도시간의 교역증진을 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LA시는 부산의 부산대학교(총장·문홍주)와 UCLA간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양도시간의 문화·학술·교류에 관해 협조를 행하기로 했다.

코리언퍼레이드참가와 LA시 200주년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LA를 방문한 김무연 부산시장은 19일과 20일 양일간 톰·브래들리시장과 만나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매년 도시개발연구관을 부산에 파견하여 상호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부산시는 동양문화연구관을 LA에 파견하여 문화교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양도시간의 상공인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상공인회의 및 상담을 통한 교역증진을 꾀하기로 했다.

한편 문홍주부산대학교총장은 21일 하오3시 UCLA를 방문 부총장 스벤손박사(DR. SVENSON)와 만나서 양교간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학술교류문제에 관한 구체적협의를 갖는다.

맛사지팔러서 獵奇殺人
한국인女從業員 2명난자된후屍體로 발견돼
테사스 코퍼스크리스티市서 發生…1명 重態

〈휴스턴지사〉 텍사스수 코퍼스크리스티시의 한인 맛사지팔러 교포종업원 3명이 강도에 의해 총에 맞은후 칼로 난도질 당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코퍼스크리스티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3800 아폴로 스트릿소재 「오사카·헬스스파」 맛사지팔러는 이날 하오 4시50분께 무장괴한들이 침입, 현장에 있던 교포여인 영자·클락(25), 봉진·포스그린(34), 태미·린·리 여인에게 38구경 피스톨 총격과 칼로 목을 베어 영자여인과 봉진여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한다.

또 태미·리 여인도 4발의 총격과 목을 칼로 베였으나 중태로 메모리얼·메디칼 센터에 입원, 수술을 받고 현재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들의 지문을 채취했으며 용의자로 롤·커크라는 남자1명과 젤루투드·스몰버츠와 신디·메이라는 2명의 여인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또 경찰은 이들 범인들이 「오사카」 맛사지팔러에서 약5천달러~1만달러 현찰을 강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살해당한 여인들이 평소 이들과 면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매주 2주에 한번씩 수금차 오는 매니저 브라운·김씨에 의해 발견됐는데 살아남은 태미·리 여인은 4발의 총격을 받고 복도에서 신음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맛사지팔러의 빌딩 주인은 LA거주 에드워드·김씨로 되어 있는데 현지 경찰은 작년에 김씨가 매춘관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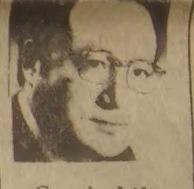
이 지역은 사건이 난「오사까·헬스스파」 이외에도 주위에는 「요꼬하마」, 「선·엔·카운티」, 「골든·엔·카운티」, 「오리엔탈」등이 몰려있으며 주위에는 미해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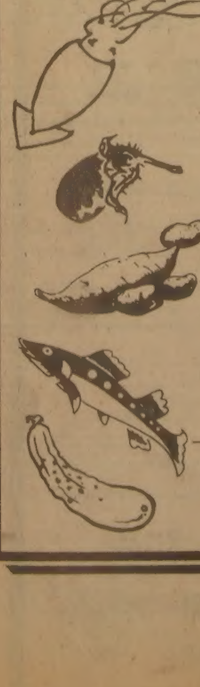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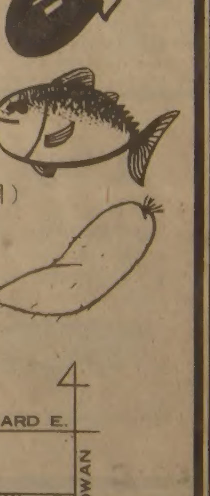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간 근무중
상 점 보 험
화 재 보 험
자동차보험
생 명 보 험
은 퇴 연 금
R. R. S. P
세 금 공 제
—Mr. Kang—
B) 868-0922
R) 622-5147

서울식품 "BIG SAL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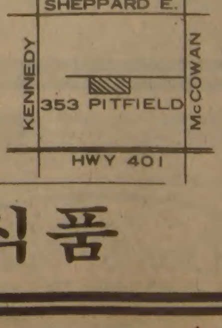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봉 배 추, 무, 풋고추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젓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젓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칼레지와 일반대학과의 비교 ①

칼레지 졸업이 취업에 유리

—갤럽여론조사서 밝혀져—

쉽게 직장을 잡으려면 대학보다 코뮤니티 칼레지에 가라.

최근 교육, 직업, 생활양식전반에 걸친 태도및 가치관에 관한 갤럽여론조사에서 200여명의 조사대상자는 한결같이 대학보다 코뮤니티 칼레지가 취업시장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토론토거주 18세 이상자 414명의 조사대상자중 53%가 코뮤니티 칼레지졸업장이 취업의 관건이라고 답변한 반면 29%는 대학 졸업장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조사결과와는 달리 정부의 통계를 보면 대학졸업자가 취업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

지난 7월의 통계에 의하면 2.2%의 대학 졸업자2.2%가 실업(unemployed) 상태에 있는 반면 칼레지졸업자들은 3.6%가 실업자였다. 온타리오주의 실업율은 당시 6%였다.

이때의 취업자는 대학졸업자의 85.3%, 코뮤니티 칼레지의 77.2%, 고등학교 졸업자의 72.7%였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대학교육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뿐 그밖의 이유로 대학을 가면 실망할 뿐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많은 대학졸업자들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 고용주들은 흔히 봉급을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졸업자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는데 칼레지제도가 도움을 준다는 일반대중의 확신은 등록통계에서도 반영된다.

작년도 온타리오의 22개 코뮤니티 칼레지에는 총 103,238명의 풀타임 학생이 등록하여 작년보다 11.6%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라이어슨 폴리테크니칼 학원및 15개대학은 총 160,113 명이 등록하여 3.6%가 늘었다.

한편 4명중 3명의 토론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나 절반은 그들이 만족할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것중의 하나는 연령보다 교육이 사람들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모든 연령층의 토론토 거주자들은 교육이 그들이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열거할때 직업과 돈 중시한다.

7가지 생활양상중 오직 「생활의 질적 수준」 만이 「돈」보다 앞선다.

「자녀교육 방법」이 「돈」의 바로뒤에 오고 그뒤로 「친구사귐」, 「공무집행 능력」등 순서이다. 교육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여가활동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느 그룹보다 교육이 이들 7가지 생활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한다.

55%의 응답자가 승진을 위해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1%는 칼레지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교육비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정부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4%는 모든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교육이나 칼레지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학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사람은 17%였다.

교육의 결핍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은 역시 국민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층이다. 이 그룹의 82%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고교졸업자는 60%, 코뮤니티 칼레지 출신은 45%, 그리고 35%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교육의 부족을 느낀다.

이들의 교육결핍의 주원인은 경제문제이다.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응답자중 31%가 재정문제로, 20%는 가족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27%는 교육보다 우선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더많은 만족을 느낀다.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중 37%가 "좋은 교과과정, 높은 수준과 연관성 있는 교육"을 그들의 만족의 원인들로 꼽는다. 한편 "좋은 학교제도"는 12%, 그리고 11%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는 좋은 선생들"을 든다.

이에반해 오직 14%만이 그들의 교육에 약간 불만을 표시하고 8%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그들중 ⅓은 교과과정이 형편없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16%는 부적당한교습을 든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토론토시민들중 30%는 "흥미있는 코스," 25%는 "취업과 연관된 코스," 다른 25%는 칼레지 수준의 코스를 추가로 선택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12%는 박사과정에 관심을 둔다.

또다른 5%의 사람들은 "자기교육(독학)을 한다— 그들은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이면 무엇이든지 배운다"고 말한다.

교육의 역할

교육은 당신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대단히	상당히	조금	전혀	불확실	평균
직업,	31%	27	22	16	4	2.76
친구사귐,	21	28	26	24	2	2.47
정부와 접촉능력	15	20	22	39	4	2.11
돈버는 것	30	25	28	15	2	2.72
자녀교육 방법	30	23	18	20	9	2.70
여가활동	11	24	24	39	3	2.07
생활의 질적수준	29	31	22	17	2	2.74

연장교육의 필요성

대학교육이 취업에 필요합니까?

	Total	18-24	25-39	40-64	65+	18 — 24 Univ	18 — 24 Non-U
예	29%	22	25	35	37	18	24
아니오	68	77	73	64	50	82	75
불확실	3	1	8	1	13	—	1
코뮤니티 칼레지 교육이 취업에 필요합니까?							
예	53%	48	50	57	57	41	50
아니오	40	50	42	37	30	59	47
불확실	7	3	8	6	13	—	3

Sports 단상(斷想) ②

최동원 스카웃문제

유 승 민 · 기

이미 본보를 통해 보도한대로 최동원 선수는 내년부터 블루제이스 40명멤버의 일원이 되어 82년3월 4일부터 플로리다「더네딘」에서 시작되는 블루제이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것같다.

물론 병역문제가 한국국회에 상정중이나 현상황으로 볼 때 한국정부가 운동선수에게도 특혜를 주어 최동원 선수의 출국을 허락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같다.

북미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의 눈에 최동원이 뜨인 것은 이미 4년전 77년 이태리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한국팀이 미국에 비록 1:0으로 졌으나 최동원의 활약은 세계각국의 여러 우수투수중에서도 독보적이었다.

그때도 미국의 여러 프로팀은 스카웃 손길을 뻗쳤으나 군복무, 학교재학등(연대 1년) 문제로 포기했었다.

지난 8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대륙간·컵」쟁탈 세계야구대회에 참가한 한국야구팀의 에이스로 출전한 최동원은 캐나다팀에 거의 완전게임에 가까운 단 1안타만 허용하는 호기록으로 역투,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다시 모았다.

이번 블루제이스의 최동원 스카웃 작전도 무슨 첩보영화를 연상시켰다.

뉴욕·양키즈, L.A. 다저스등 여러 프로구단에서 그를 스카웃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블루제이스는 일절 보도를 관제했다.

그러나 에드몬톤 대회후 최동원에 대해 여러 팀으로부터 스카웃 교섭이 오갔고 토론토·블루제이스에서 20만달러를 제시했다는 기사가 한국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루제이스는 함구, 최동원 에게 관심 없다고 딴청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블루제이스 측은 지난 10일 이미 웨일 인사부장, 스카우터 몰간, 접스의 3명을 한국에 파견, 계약을 서둘렀다.

서울서의 계약성공 소식에 접한 블루제이스측은 팻트·길릭 부사장등을 통해 정보를 누설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있다고 눈치챈 필자는 블루제이스 구장으로 19일 쫓아갔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바바시 사장, 18일 돌아온 웨일 인사부장등을 만나 내용을 알아보려 했으나 구단측은 병역문제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고 연막전을 폈다.

엑스비션 스타디엄 기자석에서 블루제이스와 엔젤스전을 취재하던 필자 옆으로 웨일 인사부장이 다가와 최동원 선수의 얘기를 다시 나누었다.

그때 인사부장은 최선수 야구기록등을 물어보며, 병역문제에 관해 자세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웨일 부장은 "우리 계약이 성공, 발표하면 한국정부의 반응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필자가 "한국정부는 운동선수들의 외국팀 진출을 적극 환영하며, 다만 병역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하워드·스타맨 대변인을 통해 본인에게 최선수의 사진, 실업야구 전적등을 다시 요청해 왔다. 22일에는 4시의 기자회견 통보와 함께 3시에 미리나와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이미 보도한대로 웨일 부장과 한국측을 대표해 수십명의 기자 질문공세에 필자가 인터뷰를 당했다.

이번 최동원 스카웃 작전을 보고 이들 프로스포츠 세계를 다시 실감케 했다. 이들은 보도기관에는 비밀에 붙이고, 은밀히 서울로 잠행, 가장 최선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친을 만나 계약에 성공했다. 이 때 통역으로 동원된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여자농구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외국인과 결혼,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명자씨였다.

비록 최선수측에서 계약내용에 불만, 항의하지만 최군이 만약 블루제이스의 1급 투수로 자랄 수만 있다면 한국야구의 미국프로 진출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우리 토론토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최선수가 이곳에 도착한 다음 후원회 같은 것을 조직 응원, 거주알선등의 물심양면의 도움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블루제이스 측도 필자에게 「최」선수가 언어불편등에서 오는 불안감들을 극복키 위해 최선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테니스얘기는 다음주로 또 미루어야 하겠다.

LA 한인들 9만명 거리에

한인사회 저력 과시한 「퍼레이드」

◇…『한국이민의 개척정신』이 올림픽거리의 청명한 9월하늘을 가득 채웠다.…◇
◇…제8회 한국의날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코리언퍼레이드가 20일 하오3…◇
◇…시 LA의 올림픽가에서 화려하게 진행, 9만관중이 운집하여 한인타운이 인…◇
◇…파로 뒤덮였다.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이희덕)가 주최하고 본보주관으로…◇
◇…열린 LA의 커다란 민속잔치 코리언퍼레이드는 이날 올림픽가(버몬트와 웨…◇
◇…스턴간)의 1마일을 따라 우리 고유의 민속춤과 외국인 밴드의 흥겨운 리듬…◇
◇…그리고 화려한 꽃차행렬로 2시간30분동안 수놓았다. 연도를 가득메운 9만…◇
◇…여 관중들은 참가단체가 지나갈때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자랑스런 한국…◇
◇…의 모습을 축하했다.…◇

맴머드化한 行事에 美政治人들도 앞다퉈참여
農樂가락속에 올림픽거리 繡놓은韓服의 물결

▲그랜드마샬 에드먼드 브라운지사. 브라운은 이날 그랜드마샬로는 이례적으로 도보로행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가단체 총인원만도 3천5백여명에 이른 퍼레이드의 그랜드마샬은 에드먼드·브라운가주지사—. 이날 행사에는 브라운지사외에도 톰·브래들리LA시장이 명예그랜드마샬로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마치·퐁·유 주총무처장관, 마이크루스주하원의원, 데이빗·커닝햄시의원, 대릴·게이츠시경국장 및 박민수나성총영사와 김명균전한인회장등 34명의 한미 관계인사들이 오픈카행렬을 벌였다.

외국취재진도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타임지와 LA타임스및 외국 TV기자들이 행사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으며 본국에서 나온 KBS와 MBC TV도 현장 취재했다

코리언퍼레이드에 이번 처음으로 참가한 그랜드마샬 브라운지사는 이례적으로 오픈카를 타지 않고 올림픽거리를 걸으며 박수를 보내는 교포들에게 미소와 손인사로 답하며 한국타운의 거름을 함께 했다.

브라운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축제가 있도록 노력한 타운번영회와 모든 교포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인은 가주사회의 한몫로 가주는 뜻깊은 이축제를 함께 즐길 것』이라고 치하했다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하려 나온 관중들이 해가 갈수록 증가 올해는 9만여명에 이르자 동원된 경찰관만도 1백50여명.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LA한인농악대의 농무와 관음사가 마련한 바라춤.

1백여명의 농악대가 꽹과리와 징소리에 맞춰 추는 농무와 서울서 온 인간문화재 이인호스님의 격정적인 바라춤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퍼레이드는 농무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나 교포들은 아쉽다는듯 자리를 뜰줄 모르다 내년9월 다시 만나기로 다짐하고 헤어졌다.

존슨,"在職시 뇌물받았다"

퓰리처賞 수상자 카로, 새 傳記物서 밝혀
遺族들은 아무런 公式반응 보이지 않아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카로씨는 20일 발행된 전기물에서 고 린든 존슨대통령은 대통령직무시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부통령 재직시에도 많은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카로는 책서문을 통해 존슨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를 위해 백악관에 진출했었다고 표현했다.

外換市서 弗貨 내림세

美금융계서 優待金利 하향조정관련

〈뉴욕-AP〉 미국금융계가 우대금리를 내리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세계달러시장의 달러시세가 하락하고 대신 독일의 마르크화, 일본 엔화등 외화가치와 금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체이스·맨하탄은행을 비롯한 주요은행들은 우대금리를 21%에서 19.5%로 내렸다.

우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매입기운이 강해지고 우대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를 버리고 대신 금이나 마르크같은 다른 가치수단을 더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21일 가장 강세를 보인 외화는 프랑스의 프랑화로 지난18일 현재 달러당 5.4225 프랑이던것이 21일 현재 5.3113으로 올라갔다.

달러화의 대 마르크화 가치도 역시 떨어졌다.

18일 현재 프랑크푸르트시장에서 1달러당 2.2620하던 마르크화가 21일에는 2.2320으로 올라갔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프랑이나 마르크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한편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금값도 올라가 21일 하루동안 뉴욕에서는 온스당 16달러, 런던에서는 온스당 20달러나 올라갔다.

21일 뉴욕금시장의 폐장시세는 온스당 4백67.50달러, 런던은 4백68달러였다.

한국일보
TEL : (416)533·2361

◇요염한 스파이—월트 디즈니 프로닥션이 제작한 스파이영화「콘도맨」에서 소련 간첩역을 맡은 여배우 바바라 바레라양의 요염한 포즈.〈AP〉

양 심 의 해 방

2.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찌니라.

고 하셨읍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사람은 육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읍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로마서8:6)

고 했읍니다. 사망 안에 있는 육신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육신이나 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체가 아닌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은 자기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성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때문에 자연히 의식을 꾸미고 외부적인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각종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양으로 섬기려는 데서 우상은 발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않는다" 등등의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의미깊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급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둘째계명이 생겨났읍니다. 이것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형상이나 외형, 의식 또는 조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자면 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평신도복음선교회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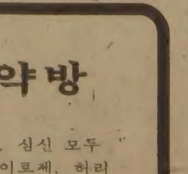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객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202A ,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5



한국인의 통닭집
NEW OPEN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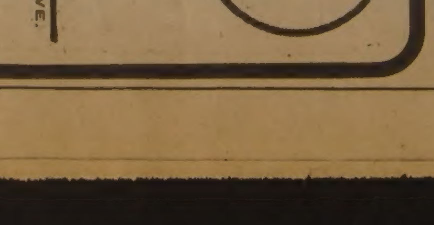
한국사람 입에 맞는 통닭구이 집을 개업했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통닭.
● 각종 Meat취급(불고기, 갈비포함)

※거리 불문코 배달함(단, 파티용 샌드위치 주문은 하루전에 연락을 요망)

미스타 김
미스타 리 올림

658 ½ BLOOR STREET W.
전 화 : 537－0432



교 육 전 도 사
청 빙 공 고

본 요한 웨슬레 자유감리교회에서는 여자전도사를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4년제 정규 감리교 개통의 신학대학 졸업자
교 역 : 2년이상 유경험자
교 단 : 전도사 증명소지자
한국어 및 영어에 능한자
연 령 : 30세 이상
대 우 : 년 만난러
연락처 : WESLEY CHAPLE
주 소 : 2385 WARDEN AVE. SCARBORO. ONT.
전화번호 : (416) 444－8343

요한 웨슬레 자유 감리 교회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SEWLL THE KOREA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돈밀과 에그린톤지역
☎ : 425-6068

도나스 샵에서 일하실 풀타임
키친 헬퍼 구함(여자분에 한함).
☎ : 481-3677 미세스 박

경험있는 헬퍼구함 :
일요일만 근무
☎ : 690-4512 75 EASTDALE AVE.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공장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분 구함 :
전기 어셈블리, 전기 텍크니션, 플라스틱 몰딩기계 어프레이터 직접와서 문의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Corner & Browns Line)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포장 일하실 여자구함 :
시간당 $3.50, WESTEND LOCATION
(키플링×HORNOR)
직접신청 또는 252-1258 전화요망
MR. HUGHES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원

풀타임 카운터 헬퍼구함
EATON CENTER내
☎ : 979-9283

입주하셔서 애기와 살림해 주실분
구합니다.
☎ : 244-7303, 663-1053

경험있는 풀타임 헬퍼 구합니다 :
미시사가 지역
☎ : 822-4895(B), 823-2445(R)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
월~금(아침9시~6시30분 저녁)
스타트 페이 $6.50
3개월 후부터 $7.
드라이빙 면허가 있어야 함.
연락처 : 624-0511 (아침 9시~저녁6시30분 연락바람)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급매 : 가게 처음하시는 분에게 호 조건임
ASKING : $10,000+스탁(물개지가능)
2727 LAKESHORE BLVD. W.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세 탁 소 급 매
☎ : 653-6336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절 호 의 찬 스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십니까. 카페테리아식 고급 레스토랑으로 낭만적 분위기이며 좋은 비지네스 입니다. 미시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매상 4천달러이며 매상은 급상중, 년간 8만달러 수입. 주 5½DAY OPEN
☎ : 270-0679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 530-0748 DAVID

FISH & CHIP매매
적은 자본으로 사업체를 찾고 계신분에게 적격, 모든 경비공제후 연 순수익 30,000달러이상, 주49시간 영업 일주에 필요한 인원은 1½사람,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633-6281 2865 JANE ST.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융게지 : 13½% (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7-743-3152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① 주매상 5500달러(프라자안에 있음)
② 주매상 3300달러(아파트 포함)
THE PERMANENT R. E.
☎ : 481-3443, 745-5483

FOR SALE
TRIPLEX집 : PRIVATE SALE(로얄욕×레이크 · 셔)
교통 아주편리(서브웨이), 액설런트 콘디숀(Wot water heating by gas), 방11개, Moving out of city, 좋은 모게지 가능. MR. ORVAL HANNA
☎ : 247-7161(B), 259-9913(R)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필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식품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6 님파 ·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신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OME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소메쌔라

한방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나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이 형 인
부 회 장:임 철 원
〃 :김 명 정
이 사 장:김 태 진
부이사장:전 윤 식

현상문예작품 마감

11명의 응모작품 접수

지난 5월초 큰 상금을걸고 응모 모집해온 회원문예작품은 11편으로 18일마감했다.

고되고 피곤한 생활속에서 메말라가는 정서의 함양과 숨겨져있는 재질을찾아내어 발표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협회는 이를 정책사업으로 채택, 추진해온 것이다.

응모기간중 우편파업으로 마감일을 연기해야하는 고충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작품이 모아졌으며, 이작품들은 즉시 본 협회 이사이며 캐나다 문인협회원인조정대, 백경락씨에게 심사를 의뢰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수일내로 입선작을 가려내어 빠르면 다음주안에 발표하게 될것이다.

시상식은 입상자들 에게 통보하여 협회사무실에서 갖게될 예정이다. 당선 작품은「실협뉴스」란에 소개하는한편, 협회가 기획하고 있는 소책자에 실어 공개될 것이다.

캐나다 전국"소기업주간"

(Small Business Week)

1월 10월25일~31일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금년 캐나다전국의 소기업주간으로 결정되어 전국 9만여개의 소기업들이 기여하는 경제적 공헌도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 주간동안에 연방기업개발은행(F·B·D·Bank)과 캐나다상공회의소의 지역회의소등과 함께 기업의욕증진재정, 자원의 발굴및정부당국의 도움등에 관하여 연구, 홍보및 안내를 하게된다.

주정부와 시, 타운의 당국자들이 함께 후원하며, 토론토시의 알트·이글톤시장은 시가 소기업주간을설정, 후원하는 이유를 천명하고 있다.

"소기업은 이 나라 경제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기업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

캐나다 전국의 노동인구중 42%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소기업들이며, 전국의 기업체중 90%가 소기업들이다. 그러므로 이 주간을 설정하여 이러한 사실을주지시켜야 한다. 우리 시민들중 이같은 소기업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소기업 주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주간 행사중에 "기업정보 경진대회"(Business Information Fair)가 열리는데 10월28일 하오2시부터 29일 하오6시 까지 일반에게 공개되며, 장소는 Dufferin St& HWY 401에 있는 할리데이·인이다.

입장은 무료이며, 출품된 관계기관의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소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할수 있는가를 알려줄 것이다.

겸하여 이틀동안"오늘날의 기업가상"이라는 주제의 코오스가 열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현대기업인의 관심으로 어떻게 소기업을 출발시키며, 그 소기업의 개발, 재정문제, 그리고 컴퓨터와 소기업과의 응용문제등을 다루는 강의도 실시된다.

더 자세한것은 Mirella Margan 598-0341에 문의하면 된다.

<제 언>

전화상담의 에티켓

협회업무중에 전화로 주고받는 상담내용만큼 비중이 큰 업무는 달리 없을것 같다. 그런데 이 전화로취급되는 대화중 지극히 기본적인 에티켓이 요구됨을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무실에는 2대의 전화기가 있다. 대개 주초인월요일부터 3일간은 전화벨이 요란히 울린다. 까닭은, 주말에 밀렸던 일들이 한꺼번에 걸려오기 때문이다.

반면 주말이되면 그런대로 상당히 조용해진다. 전화로 통화되는 내용들은거의가 항의, 불평들이다. 어떤문제에 항의상대가 되어주는 역할도 실협의 존재의미가 될지도 모르지만애꿎은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 거친숨소리와 함께 요령없는 고성을 수화기를통해 듣게될때 쓴 웃음을 짓게된다.

그런 내용이 어떤것이든지 상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오전중에 주고받은 것이었다면 온종일기분이 이상해짐은 당연할것이다.

대개의경우 딜리버리맨, 또는 세일즈맨과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이 상담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간혹 스스로 처리해야될 건들을 협회로 전가시켜오는 경우도 있다.

작은일을 크게 악화시켜 수습하기 곤란할때 협회로 전화만 해주면 섭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분들, 또 문제는 자기가 저질러놓고, 협회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회비납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분들, 통화가 시작되자부터 회장만 찾는분들, 협회실무자에는 안하무인이요, 반드시 최고책임자와의 통화로서만이 그분의권위가 서는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임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것을 잘알고 있을 터인데도 기세등등하게 호령하는 분들도 많다.

웃지못할 사실은, 협회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능을 기대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다 예를들자면, 스토어고객들과의 시비가일어 경찰에 전화를 해달라는청, 지기스토어 옆에있는 식당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니 협회가 압력을넣어시정케 하라는청, 로터리·티켓 머신을 설치할수 있도록 협회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청, 심지어는 총각중매 부탁의청,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협회의 기능이 이같은청에 부응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종류의 억지를 쓰는분들은좌충우돌 아무소리나 지껄이다가 임원들을 물고 늘어지는게 섭상이다.

협회의 임원들은 모두자기생업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이다. 협회로부터 어떤 보수를 제공받는것도 아니고, 책임때문에 없는시간을 할애하여 활동하는분들인데, 마치 직무유기라도한 협의자처럼 취급하는언사는 너무 지나친것이 아닐까? 그래서 작은 에티켓이나마 전화를 사용할때지켜보자는 것이다.

어떤때는 울컥 속이 치솟아 오를때가 있다. 마치 협회가 까닭없이 자기이익을 가로채고 있다는 식으로 대화를 전개하는데 듣기싫고 정직하게 주는대화가 아니라, 이리저리 배배틀다가, 토해낸 욜자가 그런것일때 인간적인 울분이 솟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엉킨 오해도 따뜻한 말한마디에 풀린다는 뜻이리라.

전화로 주고받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해도 듣는사람을 죄인취급하는식의 대화는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닐까?

회원들의 자상한 전화한마디가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하는 경우도 있다.

협회일에 늘 관심을 표명해 주는분들,「실협뉴스」를 통하여 알려진 일들에 대한 반응을 전해주는 분들, 추진하는 일들에 대하여 격려해주는 전화를 받게될때 마음이 흐뭇해 짐은 상정이 아닌가?

어떤일을 부탁하고 후에 그 결과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끼게도 된다. 전화로 서로 상담하게 될때,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으면좋겠다.

서로 목소리만 가지고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기분이나 감정은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암담한 문제도, 불가능한 일도 밝아지고, 가능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 민 동 정

◆이영두, 건학(Lisbon Auto Body경영)= 형제기술자로서 10월3일 하오4시35 Primross Ave(더프린×듀폰)에서 개업자축연을 갖는다. 여러 교민의 참석을 요망하며, 앞으로 최신시설과 장비로서 봉사하겠다고….

◆김진환(전 뱅쿠버한인회장)=이달초 토론토대학교 빅토리아대학에 유학 오는 장남 김욱군을 동반, 토론토에 들렀다. 김씨는 23일토론토친지들의 안부를 물으며 아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김욱군은 학교서 1,35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강상권(본보 런던지국장)=지난 21일 서울서 매부 김범구씨(건축업), 누나 강종자씨, 처남 허인삭씨등 친척 3명이 관광차 도착, 기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50%(55%) 할인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협회 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구 혼
28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여성원함 관광방문녀도 무방함
MR. 강 일 영
1015 ROOSEVELT RD. #303 MISSI.ONT.L5G3Y7

재색과 학력 겸비한 29세 미혼여성 중매
유럽에서 고교와 대학졸업, 현재 간호학과 졸업반
(이민자녀)
30~45세 사이의 학력있는 분의 연락바람
연락처 : T. CHOI 1355 SO. HOPE ST. #311
L. A., CA. 90015 U. S. A.

집·방세·하숙
아파트 서브렛 : 렌트 $259
입주 10월1일 LAKESHORE와 MIMICO
☎ : 252-8823

집세 놓습니다. 교통편리 : 던다스(영 & 처치)
1 &2 베드룸 With Patio deck, 즉시 입주가능,
냉장고, 스토브 설치되 있음. ☎ : 444-1322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간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에덴침례교회 이전안내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교민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풍요가 넘쳐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덴침례교회는 더크고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여 교민들에 영혼의 안식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10월4일(주일)부터 이전한곳 Mt. Dennis Baptist Church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 소 : Mt. Dennis Baptist 교회 : 1272 Weston Rd.
(Jane×에그린톤 근방)
예배시간 : 매주금요일 : 오후7시 : 청소년 성경공부
매 토 요 일 : 오후7시 : 구역예배(가정순방)
매 주 일 : 오후1시30분 : 성경공부
〃 : 오후2시 : 주일예배
담임목사 : 정 태 진
전 화 : 665-2866(사택)

에 덴 침 례 교 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教育稅、5百萬원이하建物 면제

差等附加 政府案확정

건물 5百萬원이상엔 30%
토지 住居30%·非住居50%

내무부時價標準額기준

정부는 당초 부동산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재산세에 50%를 부가해서 과세하려던 敎育稅징수방안을 일부 변경、주택과 비주거용 건물및 내무부 싯가표준 5백만원이하 가옥등에대한 교육세를 差等부과키로했다。22일 재무부가발표한 재산세에대한 교육세부가 조정방안에 따르면 당초 6대도시 재산세일률 50%를 부가토록한것을 고쳐 어렵게 내집을마련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거용의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에대한 교육세 부가율을 당초50%에서 30%로 인하조정키로했다。

5백만원건물 財産稅 3만1천원…전체 82%
利子배당 5%…담배(3백원이상)·酒稅(탁주·약주 소주 제외)10%씩

또한 내무부 싯가표준으로 건물가격이 5백만원이하인 소규모 가옥에대해서는 교육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따라서 주택에대해서는 1년에 2번나오는 대지분이나 건물분재산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내게되며 5백만원이하 소규모주택이라도 대지분 재산세에대해서는 30%의 교육세를 물게된다。이번 조치로 면세가되는 내무부 싯가표준 5백만원이하 가옥은 실제 시중가격으로는 1천5백만원정도의 가옥이기 때문에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나 20~25평짜리 단독주택은 건물분에대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또한 싯가표준 5백만원짜리 건물분재산세는 本稅(재산세) 1만5천원、기타세금(방위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등) 1만6천원등 총3만1천원이므로 실제 건물분재산세를 3만1천원이하로물던 주택은 건물분에대해서는 교육세를 물지않게되는 것이다。 이번조정으로 교육세는 주거용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50%、이자배당소득금액의 5%、탁주·약주·소주를 제외한 酒稅액의 10%、3백원이상짜리 담배가격의 10%씩을 징수하게된다。이번 조정으로 82년 교육세수입은 당초 2천5백억원 징수규모에서 1백억원이 줄게됐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상오 南悳祐국무총리 주재로 申秉鉉부총리 徐廷和내무 李承潤재무장관과 金在益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교육세신설에따른 관계장관협의회에서 확정된것이다。

한편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등 6대도시를 기준、80년의경우 재산세 7백59억원중 46·5%가 주거용 재산세였고 가옥분 납세의무자의 82·4%가 내무부싯가표준 5백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살고있기때문에 이들은 이번조치로 그만큼 세율인하나 면세혜택을 입게되었다。

◇教育稅附加방안

대 상	附加率	備 考
財産稅 <주거용 / 비주거용	30% / 50%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등 6大도시 ○500만원이하 家屋分 면세
利子配當所得金額	5%	
酒 稅	10%	탁주, 약주, 소주제외
담배 價 額	10%	300원이상담배

◇教育稅附加時 財産稅稅負擔比較 (家屋分)

區 分	現行 本 稅	現行 其 他	現行 計(A)	敎育稅附加時 追加稅額	敎育稅附加時 合計(B)	稅負擔增加率 (B/A) %
時價標準額 500萬원	1·5	1·6	3·1	非 課 稅	3·1	—
700萬원	2·5	2·3	4·8	0·7	5·5	14·6
1,000萬원	4·0	3·5	7·5	1·2	8·7	16·0
1,500萬원	9·0	6·0	15·0	2·7	17·7	18·0
3,000萬원	44·0	17·7	61·7	13·2	74·9	21·4
6,000萬원	194·0	58·1	252·1	58·2	310·3	23·1

(單位:萬원)

◇柳炳賢신임 駐美대사가 21일 白堊館에서 레이건美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있다。【워싱턴22日UPI=聯合】

레이건、訪韓희망
柳大使 신임장받고 밝혀

【워싱턴21日=聯合】 레이건美 대통령은 21일 만약 사정이 허락하면 가까운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하고싶다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柳炳賢신임駐美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訪韓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나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판매와 사회복지예산삭감등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들때문에 訪韓기회를 잡기가 힘들것같다고 덧붙였다。

지난71년 한국을 방문한바있는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韓美양국이 상호간의 협력과 우호를 보다 증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柳대사를 통해 全斗煥 대통령과 한국민에 안부를 전달했다。

柳대사는 부임70여일만인 이날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전강과 미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비는 全斗煥 대통령과 한국민의 희망을 전달했다。

蘇代表團、波에

【바르샤바22日AP聯合=特約】 소련부수상 니콜라이·바이바코프가 소련대표단을 인솔하고 폴란드정부초청으로 22일 바르샤바에 도착했다고 관영PAP통신이 보도했다。

技能장려기금 10億조성
優秀人지원 資格試 개방
國內大會도 金賞2百、銀賞1百、銅賞50만원으로

정부는 22일 우수한기능인을 확보키위해 10억원규모의 기능장려기금을 조성、산업현장에 근속하고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지급하는등 기능인 우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능인우대방안은 오는 84년까지 기금을조성하되 내년부터 산업현장에 근속하고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들에게 연간30만원의 장려금(차등지급)을 지급하는 한편 23일부터 大田에서열리는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상금을대폭인상、금상 수상자에게 2백만원(종전20만원)은상 수상자1백만원(〃15만원)동상·수상자에겐 50만원(〃10만원)을 수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술자격취득자의 우선채용과 승진및 보수상의 우대조치는 물론 기업체에 대해서도 자격취득자의 우선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우수한현장 기능인을 확보키 위해 기능이 우수할 경우 학력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할수 있도록 자격종목의 확대와 시험기준조정등 현행 검정제도를 개선하고 공업고교와 공인직업훈련원 졸업생은 물론 직장직업훈련원에서도 1년이상 기능의 연마、좋은 기능을 습득한 경우 기능사 2급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民韓、14개改正法案 곧 國會에
1次로 黨務會議거쳐確定
地自制·爭議 조정법등

民韓黨의法令정비 特委(위원장 林鍾基의원)는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할 각종 법률 개정안중 1차로 언론기본법、지방자치법、노동爭議 조정법등 14개법률의 개정 試案을 마련、발표했다。

同개정 試案은 당무회의의최종심의를 거친뒤 정기국회에 제출여부가 결정된다。

法令정비特委가 마련한 개정試案을보면 언론기본법의 경우 현행의 登錄取消조항인 24條1項의「문화공보부장관은 제20條제12項의 규정에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한 者가 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1年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발행의 정지를 命할수 있다」는 부분에다「法院의 판결에 의하여」를 삽입、取消요건을 대폭강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고、지방자치법의 경우 오는83년까지 市·道 議會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特委는 農協·水協·畜協등 3개협동조합의 임원任免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하고 대신 임원은 선출제로 대체하도록했다。

법령정비特委가 개정試案을 마련한 14개 법률은 ▲언론기본법▲지방자치법▲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노동쟁의조정법▲刑訴法▲行刑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農協法▲水協法▲畜協法▲農·水·畜協임원 任免에 관한 임시 조치법▲부동산소유권移轉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다。

國會 文公委員長 韓柄寀의원 選出

국회는 22일하오2시 本會議를 열고 돗자리사건과 관련하여 사퇴한 李興洙文公위원장의 후임으로 韓柄寀의원(民正)을 선출했다。

◇韓柄寀文公위원장

◇全斗煥 대통령이 民防衛 유공자들을 표창하고있다。

"北傀불장난 膺懲態勢완비
平和위한忍耐、弱勢로 誤算말길"
全대통령、民防衛6돌 諭示

全斗煥 대통령은 22일『北韓공산주의자들은 평화定着을위한 우리의 성의와 인내를 결코 弱勢의 표현으로 誤算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경고하고『우리는 스스로를 수호할 결의와 힘을 갖추고 있으며、섣부른 불장난을 응징할태세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民防衛隊창설 6주년기념식에 참석、諭示를 통해『최근에만도 北韓공산주의자들은 白翎島상공침범、美軍정찰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우리前方초소에 대한 총격사건등 도발적행동을 거듭해왔으나 우리가 계속 隱忍自重하고 있는 것은 同族相殘의 비극을 또다시 재현할수 없다는 충정때문인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우리가 放心하거나 對備태세를 소홀히한다면 이는 곧 北韓공산집단의 모험주의 전략을 고무하는것이 될것』이라고 지적하고『국민의 단합을 바탕으로 국군의 戰力증강과 방위산업의 육성、그리고 예비군및民防衛隊의 강화등 自主國防태세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當爲性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는 지금 민주정치의 토착화와 정의로운 福祉사회의 건설등을 國政의 指標로삼아 추진해나가고있지만 韓半島에서의 전쟁방지야말로 이모든 과업수행의 전제』라고 말하고『同族간의 流血충돌의재발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라도 회피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우리가 기울이고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대해 국제적신뢰와 지지는 그어느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정부와 국민은 안정기반위에서 제2의도약을위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히고『民防衛隊員여러분은 여러분에게지워진 사명과 직분을 한시도 잊지말고 민방위교육훈련에 솔선참여해 물샐틈없는 後方경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으며、또한 자연災害는 산업화에따른 각종재해의 증가에 대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제 新聞人協會 事務總長을 接見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상오 청와대에서 피터·갤리너國際新聞人協會(IPI)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李光杓문공부장관과 金相万IPI이사、金聖鎭IPI국내위원장등이 배석했다。

한국、對話노력 支持
헤이그、유엔總會연설 國際침략저지 支援

【유엔本部21日=聯合】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1일 한국정부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이룩하기 위해 南北韓간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주도적노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적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의 대화를 증대시켜 공정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안보와 개발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국제적폭력을 선동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조나 정신적지원도 베풀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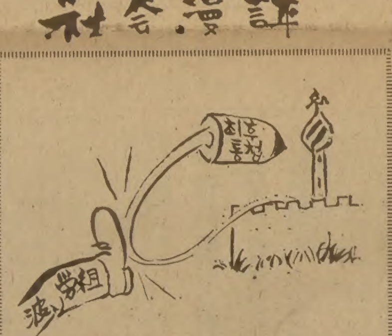
중소附品공업 西獨진출을 促求
徐상공 韓獨통상장관회담서

韓獨통상장관회담이 21일 하오(현지시간) 독일경제성 회의실에서 徐錫俊상공부장관과 오토·G·람스돌프독일 경제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자리에서 徐장관은 한국의 중소부품공업육성을 위해 서독의 對韓진출을 촉구하고 한국은 독일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86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또 독일측이 多者間무역협정(MFA)에서 체결된 反덤핑협약과 수입절차협약에 한국의 조속한가입을 촉구한데대해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韓·獨양국은 최근 서울에 설치된 韓·獨상공회의소기능을 강화、정부및 민간레벨의 경협을 증대키로 합의했다。

社會漫評



일 축

地平線

『결혼이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고 미국 사우먼·코네티컷 주립대학의 바버러·드프렘크·린치교수는 말하고 있다。『부부는 싸우고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야되고、싸움과 위기가 없다면 결혼은 성장하지않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결혼이란 달콤한 열매는 말하자면 싸움과 위기속에 나온다는얘기다。그 위기를 넘기지못한 부부들은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61·4%가 결혼한지 5년을 넘기지 못한 부부들이다。나이로 치자면 여자는 20대가 47%、남자는 30대가 55%다。그중에서도 중매로 맺어진 부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있다。중매결혼의 이혼율은 연애결혼의 4배나 된다는 결과다。역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더 안전한것같다。

▼그래선지「중매 반、연애 반」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나、그부모들이나 다같은 이상이다。한 조사에 의하면 여고 3년생중 서울에선45%、지방에선 61·6%가「중매 반、연애 반」을 내세웠다고 한다。30~50대 도시여성들을 상대로 알아봤더니 76·7%가「중매 반、연애 반」을 지지했다는 조사보고도 있다。전통과 꿈의 절충방식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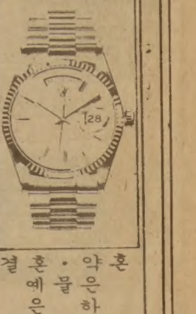
▼그것이 고난의 길입 망정 어쨌든 결혼은 누구나 꿈꾸는 인간의 생활양식이다。이혼을 식은 죽 마시듯하는 미국사람들도 92%는 평생에 적어도 한번 결혼을 시도해 본다고 한다。또한 결혼한 부부의 58%는 15년이상、52%는 20년이상、47%는 25년이상 가정을이루고산다。50년을 넘어 금혼식을올리는 부부도 16%나되고있다。생각보다 큰 숫자다。

▼그러나 평생의 짝을 찾는다는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인구의 대부분이 옹기종기 농촌에모여살던 옛날엔 집안끼리 사주를 맞춰 보는 것으로 결정될수 있었다。그러나 모두가 낯선 사람이요、부평초같은 떠돌이 인생들이 대도시에 몰려사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중매 반、연애 반」이란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 방편이다。도시시대의 새로운 풍속이다。

▼지난5월초 농정협의회 첫회의에서는『농촌 총각에게 신부를 보내달라』는 주장이 나왔었다。이번에는 대구에서 신부감이 5만4천여명인데 신랑감은 1만명이나 모자란다는 통계가 나왔다。54군데나 되는 서울의 결혼상담소에도 신부지망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한다。「중매 반、연애 반」으로 풀수없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상태다。새로운 사회여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49
은: 온스당 US 9.6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바뀌어 가는 계절을 실감케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민의 삶이 그저 막연히 저편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즈음 우리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로원 건립에 첫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저. 여기에 작은 모임을 마련했읍니다.

이번 자선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중진화가 여러분들이 우리 전립위의 적극호응하여 그분들의 정열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국의 바쁜 생활 뒷그늘에 가리워 자칫하면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노후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따뜻이 감싸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되어 집니다.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는 삭막한 이민의 삶에 뜻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읍니다.

끝으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북설화랑)
시 간: 10월 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2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일동

특별신앙집회안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 신앙집회를 갖고저 하오니 많이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 제: 고난의 의미
일시및 제목: 10월3일(토) 오후8시—민중의 한(恨)과 하나님의 경륜
10월4일(주일) 낮2시 예배—그리스도인의 삶
10월4일(주일) 오후8시—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강 사: 문 동 환 목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 한국신학대학 교수)

문 박사님과 시내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각교회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 목: 2세 교육과 교회학교 교사
일 시: 10월3일(토) 오후3시~4시30분
장 소: 본교회 친교실

장 소: 본교회 교회당
주 소: 300 BLOOR ST. W., TORONTO,
전 화: 925-6261

토론토 한인 연합교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체코 反體制운동 窒息위기

波事態에 자극…3개 主要團體 검거旋風

【프라하21日AP=聯】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미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된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사회는 최근 영향력있는 많은 반체제인사들이 재판에 회부될것이 확실시됨으로써 반체제 운동자체가 완전 마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됐다.

대부분이 人權운동단체인 『77헌장』 그룹소속인 14명의 반체제인사들이 海外망명반체제운동가들과 내통, 정부전복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곧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14명의 반체제인사는 앞서 2명의 프랑스변호사가 체코의 반체제운동가들을 위해 해외반체제단체로부터 자금과 불온책자등을 밀반입하려했다는 혐의로 국외추방된데 이어 정부당국이 지난5월에 벌인 10년래 최대규모의 반체제인사 일제검거에서 구속된 40여명의 반체제인사들중에 포함돼있다.

아직도 체코의 교조적공산당 지도자들을 괴롭히고있는 1968년 『프라하의 봄』의 망령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폴란드 사태때문이라고 말하고있다.

한 반체제인사는 『체코에서 폴란드와같은 사태가 발생할 잠재적요소가 있는한 당국은 이를 제거하기위해 가능한모든수단을 동원할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회부될 14명의 반체제인사들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지리·하제크(68)로 그는 68년 바르샤바조약軍의 침공으로 축출된 알렉산더·두브체크前공산당제1서기의 京新정부에서 외상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러나 가장 중죄인으로 취급되고있는 인물은 비교적 이름이 덜알려진 전직사회학교수인 지리데·시크로바(46)인데 그는 지하정보망을 조직, 활동이 금지된 작가들이 집필한 불온책자들을 해외에 보내는한편 西方의 해외망명 반체제단체가 간행한 정치·문화관련 신문잡지등을 몰래 들여왔다는혐의를 받고있다.

그밖에 이들 14명중에는작가인 에바·칸투르코바, 모즈미르·플란스키와 구속돼있는 동안 체중이 10㎏이나 줄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저명한 전직 방송기자 카렐·킨롤등이 포함돼있다.

反政14명 곧裁判회부
가톨릭에도 彈壓가중

체코정부는 최근 수개월동안 반체제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는것과 동시에 폴란드의 가톨릭교회가자유노조운동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있는것을 감안, 이미 강력한 탄압을 받고있는국내가톨릭교회에 대한 압력을 눈에 띄게 가중시키고있다고 반체제소식통들은 전했다.

빈의 해외망명 반체제단체소식통들은 2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등 6명의 가톨릭인사들이 종교서적을 불법거래했다는 혐의로 오는 28일 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 爆彈테러 連5일째

【베이루트21日AP=聯】 레바논 항구도시 트리폴리에서 21일 3차례의 연쇄적인 폭탄폭발사건이 발생했고 베이루트와 남부항구도시 시돈에서는 신관이 제거된 폭탄이 장치된채 발견됨으로써 레바논은 연5일째 폭탄테러의 공포를 겪고있다.

경찰은 이날 트리폴리에서 시리아軍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아랍평화유지군의 한 순찰차량밑에서 지뢰가 폭발했다고 밝히고 이사고로인한 사상자수는 아직 밝혀지지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거의 때를같이하여 트리폴리의 팔미카엘선 담배公社에서도 폭탄이 폭발했으나 사상자는 없었으며 앞서 이도시교외에있는 가스저장실밖에서도 위장폭탄이 터졌으나 역시 사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베이루트의 西部회교도지역에있는 하마드街에서 폭탄이 발견되어 제거됐다고 밝히고 이 폭탄은 한 주택건물의 입구에 설치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탐사·시추위해 中共, 외국회사물색

【北京22日AP=聯】 중공은 22일 연안석유자원의 탐사및 시추를 외국석유회사에 맡기로결정, 금년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이에관심있는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탐사및 시추에관한 구체적인접촉에 들어갈것이라고 발표했다.

波勞組、2차全國大會 방해하면 "政府에 보복"警告

【로마21日UPI=聯】 폴란드공산당정부가 오는26일 개막되는 자유노조의 제2단계 전국대표 대회개최를 방해할경우 자유노조는 이에 『보복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폴란드 자유노조의 야누츠·오니츠키에비치대변인이 21일 경고했다.

오니츠키에비치 대변인은 이날 이탈리아 국영TV방송과의 회견에서 폴란드자유노조의 제2단계 대회개최에대한 양측간의 위협이 남아있으나 정부측이 노조에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경우 노조는 對정부 보복조치를 취하게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노조와 의 자결권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간의 타협가능성은 1개월전에 비해 훨씬 희박해졌다고 덧붙였다.

세계를 샅샅이…美 早期경보기의 雄姿

◇美國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계획인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의 웅장한 모습. 이비행기는 21일 美의원과 보도진에 공개됐다. 【앤드루즈공군기지(美메릴랜드州)21日AP=聯】

잊어버린 戰爭

이란·이라크 開戰1년

"1週內끝난다"壯談빗나가 뚜렷한名分없이 消耗戰만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라크군。허공에 대고 사격자세를 취하는 이들의 표적은 어디인가。멀리 아바단 정유소가 포연에 싸여있다。【AP】

80년 9월22일 토요일 밤。테헤란의 메라바드공항을 포함 이란의 10개 비행장에서 폭음과함께 화염이 치솟아 올랐다。세계최대정유소 아바단이 불길에 휩싸이고 샤트·알·아랍水路에는 십자포화가 어지럽게 날았다。이란·이라크의 싸움이 선전포고없는 全面戰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페르시아灣의 覇權을 노리고 이란의 콧대를 꺾겠다고 나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전쟁은 일주일내에 끝날것이라고 호언했다。혁명으로 약화될대로 약화됐으리라 판단한 이란은 그러나 의외로 완강히 저항해왔다。

이란 회교지도자 호메이니翁은 이란인은 최후의1人까지 이라크와 싸울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란석유의 寶庫 후제스탄省과 국경지방 전략요충을 장악,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던 후세인의 전격작전은 완전히 빗나갔다。

두나라 모두 일주일을버티지 못할것이라는 서방군사전문가들의 견해와는달리 전쟁은 뚜렷한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채 장기소모전으로 들어갔다。

세계가 이란·이라크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것은 오직 석유때문。서방석유의 젖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양국의 원유수출이 중단될경우 油價가 배럴당 1백달러까지 뛸지도 모른다는 예측때문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았고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중에도 생산량이 줄어들긴했지만 원유수출을 계속했다。

서로의 승리를 장담하는 舌戰만 요란할뿐 전쟁은 세계인의 뇌리에서 서서히잊혀진채 1주년을 맞았다。

이란·이라크전쟁은 승자도 패자도없을뿐더러 싸우는 명분이 뚜렷하지도않고 세인의 관심마저 끌지못하는「기묘한 전쟁」이 돼버렸다。

이전쟁에서는 전사자수、이재민수、양국의 피해액의 대강마저도 집계되지 않고있다。

한서방관측통은 지난 6월말현재 양국피해가 전사자5만, 이재민 2백만, 피해액 8백억달러 정도라고 추산했을뿐。

아무도 이전쟁이 1년이상 가리라고 예측하지못했듯이 언제 어떠한방식으로 페르시아灣의 포화가 멎을는지는 점칠수 없다。【李炳圭기자】

인사이드

美·加 경제紛爭

加의 에너지産業 보호책에 美、자동차輸入제한등 맞서

◇트뤼도加수상

◇레이건美대통령

미국과 캐나다는 에너지 경제및 환경문제등을 둘러싸고 수년래「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인접국끼리는 사이가 좋을수없다는 국제정치상의「場의 이론」이 韓·日관계뿐아니라 美·캐나다 관계에서도 딱 들어맞고있는 것일까。

美·캐나다관계를 가장 악화시키는 심각한 요소는 경제문제。특히 캐나다內 에너지산업에 대한 캐나다化」를 추진하는 트뤼도정권의 경제적 국가주의가 美·캐나다분쟁의 초점이 되고있다。

현재 캐나다의 석유·가스등 에너지산업은 약66%가 미국회사들에의해 지배되고있다. 10大회사중 9개가 25大회사중 17개가 외국이권에 들어있는데 몇개만 빼고는 모두가 미국人것이라는게 캐나다정부의 공식통계다。

이같은 캐나다 에너지산업의 외국회사지배에 대해 트뤼도정부는 지난73년 외국투자심사기구(FIRA)를 창설, 캐나다에 큰이익이 안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시키는 한편 더나아가 오는 1990년까지 캐나다에너지산업의외국지배권인 소유권을 50%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계획에따라 캐나다는 앞으로 외국인소유 석유·가스회사의 자산의 30%가량을 구입하고 국영 페트로·캐나다회사에 캐나다서 발견된 석유·가스 25%의 구매권을 인정하고있다。

그러자 미국은 캐나다내 자국회사의 보장을 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트뤼도의 에너지산업 캐나다化 정책은 미국에대한 분명한 차별대우로서 약1백6억달러에 상당하는 캐나다내 미국인자산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할수없이 캐나다人에게만 팔도록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또한 에너지캐나다화정책에 보복으로 강력히 맞섰다。미국은 미국이 제안한 美·EEC·日 3者무역문제 협상에 캐나다의 참가요청을 거부했으며 캐나다의 對美 자동차수출에 관한 美·캐나다협정폐기와 캐나다의 對美투자자유에조치등을 검토하고있다。

또 미국은 對캐나다보복책으로 알래스카와 캐나다産 천연가스를 캐나다를경유하여 미국까지 운반하는 송수관설치를 중단시켰다。【金善毅기자】

英여객기 불 日에 비상착륙

【千歲(北海道)22日AFP時事=聯】 영국 브리티시항공사 소속 대형 점보보잉 747 제트여객기 한대가 22일하오 런던을 출발、東京으로비행하던중 기체에 불이나 일본북부 北海道의 지도세(千歲)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일본 항공국은 승객、승무원등 탑승자3백99명 전원은 무사히 위기일발을 모면했다고 발표했다。

비행기화물칸부근서 일어난 기체가 北海道연안 태평양상공을 고도10㎞로 비행중 조종사가 발견、지도세 공항관제소에 비상타전했다。

中共、軍將校 5만7천명 법조계곧配置

【北京21日UPI=聯】 약5만7천명의 中共軍 장교들이 곧 中共법조계에 배치될 것이라고 관영 新華社통신이 21일 中共 부사법상 李運昌의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통신은 李가 29~45세 사이의 제대장교 5만7천명이 公安부서를 비롯、검찰기관 각급법원에 배치되기위해 현재 훈련을 받고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국제原子力機構서 이스라엘 逐出가능

【빈22日UPI=聯】 이라크원자로 폭격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회원국들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아온 이스라엘이 이번주중 IAEA로부터 축출될지도 모른다고 IAEA회원국대표들이 22일 말했다。

한서방대표는 이라크가 이번 제25차 정례회의에서 이스라엘 축출에 필요한 3분의2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지국가들은 모종의 해결책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蘇軍 1만여명희생 아프간戰 介入이래

【브뤼셀21日AFP時事=聯】 지난 1979년12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이래 약1만명의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이곳의 미국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정통한 이 소식통들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들에게 아프가니스탄사태에 관해 브리핑하는가운데 그같이 밝히고 또한 소련은 병력수송차량과 탱크를포함하여 약 1천대의 차량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日·蘇 대화再開제의

아프간事態후 중단된 外相회담등

스즈끼 會見

【東京21日AP=聯】 스즈끼(鈴木)일본 수상은 21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 중단된 일·소간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간중단 상태에있는 양국간 정기외상회의및 실무자회담을 재개할것을 제의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일본의 한 사설텔리비전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지난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래 일·소관계는 원만하지 못해왔다면서 그같이 제의하고 손노다·스나오(園田) 외상이 현재 뉴욕에서 개최중인 유엔총회기간중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을 만나 자신의 이제의를 소련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끼수상은 또 소련점령 北海道 북방4개도서의 영유권분쟁도 아직 미결상태라고 말했는데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북방4개도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소련이 부인하고있다는 사실이 일·소관계 긴장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손흔드는 女性大法官 美역사상 최초의 여성대법원판사가된 산드라·데이·오코너여사(中央)가 21일 上院의 인준사실이 발표된후 대법원건물앞에서 손을 흔들어보이고있다。【워싱턴22日AP=聯】

美 첫女性大法判事 上院서 오코너認准

【워싱턴21日UPI=聯】 美上院은 21일 산드라·데이·오코너여사(51)의 대법원판사 임명을 인준、미국여사상 최초의 여성대법원판사 탄생이라는 미국정치사의 새로운章을 열었다。

하워드·베이커 上院공화당원내총무는 표결후『오늘은 美행정부사상 매우드문역사적날로 기념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버트·버드 上院민주당원내총무도『우리는마침내 性이 차별요인이 되지않는 美역사상 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논평했다。

메아리

22일로 민방위대의 창설 6주년을 맞게 되었다。

당초 국민의 자위조직으로 출발을 했던 민방위도 그사이 꾸준히 내실을 다져 오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정신적인 다짐과 힘을 함께 갖추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민방위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세계에서도 가장 맹목적이고 교조적인 공산집단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필요성은 가위 필수적이라 할수가 있다。

조선왕조시대 역(役)의 하나로서 그 기능은 전투원의 직분만 아니라 순시、포도(捕盜)、수솔(隨率)、노동등을 맡았다。

오늘의 우리 민방위대도 비록 정규군사조직체는 아니지만 각지역단위로 뭉쳐 자기가 사는 마을과 고장을 지키고 유사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평소 힘을가꾸어 정규군을 돕게 되어있으니 민방위대야말로 국군및 예비군과 더불어 우리 국토방위를 위한 세 기둥의 하나라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

民防衛隊 6돌

뿐만아니라 지난번 태풍피해의 경우와같은 천재지변과 기타의 재해에 대해서 사전예방하는데 주축이되고 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첨병의 구실을 함께 맡았으니 자연 사회의 여망도 크다하지 않을수없다。

일찌기 외적의 침공이 있을때 관군 못지않게 우리국가수호를 위해 용맹을 떨쳤던것은 각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당시의병이었다。임진왜란에서만해도 경상도 의령에서 일어난 곽재우장군의 용전이나 금산에서 싸우다가 7백여명이 전사해서 오늘날도 7백의총에잠들어 길이 그 충절이 현양되고 있는 의병의 정신과 역사적 전통은 그대로 민방위대의 정신적지주로 계승되고 있다。

全대통령은 이날축사를 통해『지워진 사명과직분을 한시도 잊지말고 민방위교육훈련에 솔선 참여하여 물샐틈 없는 후방경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힘이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고 평소 훈련의 축적에서 얻어진다는 소박한 이치를 창설6주년을 계기로 제가끔의 마음에 더욱 다짐해야하겠다。

해외토픽

海賊 날로 극성…말래카海峽

水路좁아 夜陰틈타습격 財物약탈

간단한 수영복 차림、蠻刀를 옆구리에 찬 3~4인조가 갈쿠리 달린 로프로 대형선박에 기어오른다。동작이 뱀처럼 민첩하다。잠시후 약탈한 돈과 재물을 가진 그들은 작고 빠른 배를타고 쏜살같이 사라진다。현대판 해적이다。

말라카 해협의 해적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있다。

해적은 바다를 무대로 한 정의롭지않은 약탈꾼。그럼에도「海賊」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게한다。무용담으로 꿈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10세기전후 북구의 바이킹을 연상케 하기때문이다。

말라카의 해적은 바이킹과 달리 좀스럽다。그곳서 해적이 날로 극성을 더해가는 이유는 수로가 좁고 해역의 국적이 불분명 하다는 취약성과「먹이」인 덩치큰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기때문이다。

금년들어서만도 일본 유조선 7척이 털린것을 비롯 잇달아 각국의 원양선박들이 이들에의해 약탈 당했다。그래서 영국선박평의회는 지난달 이해역의 해적출몰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미국의 유력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紙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현지르포로 특집을 냈다。

일본배의 경우 모두가 유조선이었다。10만톤안팎으로 덩치가 크지만 선원은 지극히 적기때문。지난1일 약탈당한「매머드모나크號」는 그 전형적인 예다。

선박들은 해협을 통과할때 수로가 좁아 서행하게된다。수로폭은 1·2㎞로 웬만한 운동장 두개의 크기。매머드 모나크號가 야간서행할때 해적들은 어둠을틈타 선미의데크로 로프를타고 승선、비어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침실에서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다。

해적들의공격에대항하기란 쉽지가않다。말라카는 싱가포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타이의 어느나라 수역도 아니다。그래서 전극적인 해양경찰권발동이 어렵다。

해적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설이있다。또 솜씨로 미루어 군사훈련을받은것같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적들에의한 인명사고는 없었다。그러나 계속 방치된다면 앞으로수법이 더욱잔인해지고、돈과 물건뿐아니라 선박자체를 납치하는 심각한 사태가 날지도 모르게된다。【朴鍾九기자】

오늘의 小史 <23일>

- ▲日軍 印支半島에 진주 (1940)
- ▲刑事訴訟法 공포 (1954)
- ▲美, 크리스머스島서核實驗성공 (1958)
- ▲漢江邊 유료도로강변 1 로개통 (1967)
- ▲필리핀에 계엄령, 上院의원및 記者 체포 (1972)
- ▲아르헨티나 正·副통령선거에 페론夫妻당선 (1978)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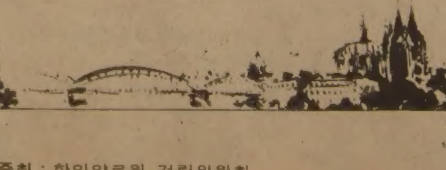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광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묵설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올 容信봉사상 受賞者 3명 決定

'버려진삶'들의 등불이되어…

田豊子씨 醫師로 小鹿島 나환자에 온힘
朴景姬씨 大田에 고아·浮浪兒수용소차려
河德子씨 산골에 고아들 收容 同苦同樂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8회「容信봉사상」수상자로 본상에 田豊子씨(66·전남 고흥군소록도 국립나병원의사), 장려상에 朴景姬씨(59·전북군산시 일맥영아원장)와 河德子씨(38·충북청주시 順陽院육아원장)를 각각 선정했다. 「容信봉사상」은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선구자인 崔容信을 기념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24일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대회에서 시상식을 갖게된다. ○○○○○○

이들 3명의 수상자는 나환자들을 위한 의사로, 버려진 영아와 부랑자를 위한 사회사업가로 뜻깊은 삶을 살고있는 여성들이다.

馬山YWCA가「용신봉사상」후보로 추천했던 田豊子씨는 46년 東京女醫大를 졸업하고 일본국립나병요양소 의사로 근무하면서 나환자와 첫인연을 맺게되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그는 馬山에서 산부인과병원을 개업하고 7년간 馬山YWCA회장직을 맡는등 여성운동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다가 76년11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록도로 떠났다.

함북태생으로 가톨릭신자인 그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6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지않으려면 공부를 더해야한다는 생각으로 25살때 일본유학길에 올라 30살때 의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일찍 어머니를잃었고 다시 20代에 동생을 잃은후 그들과 못다나눈 사랑을 불쌍한 이웃을위해 쏟기로 결심했었다』고 밝힌다.

그는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사랑을 쏟아주는 어머니로, 항상 함께 기도하는 전도사로 후회없는 삶을 살고있으며 틈이날때면 손수 만든 빵이나 달걀등을 들고 환자를 찾아다니곤 한다. 병원에서 같이일하는 의사와 간호원들은『그분은 입으로 봉사하는 분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이며, 환자들은 꼭 아파서가 아니라 어머니같은 田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자주 오곤 한다』고 말한다.

전북도청의 추천으로 장려상을 받게된 朴景姬씨는 群山구세군교회 목사인 金賢鎬씨의 아내이며 그자신도 구세군사관학교에서 神學을 공부했다.

그는 목사인 남편을 도와 교회일을 하다가 6·25후부터 大田해생원(부랑아 수용소)', 군산구세군생활원(고아원)', 군산일맥영아원등을 맡아 운영해왔다.

그가 院長로봉사했던 大田해생원과 구세군후생원 수용자들은 대부분 훌륭하게성장하여목사, 전도사, 공무원, 회사원, 교사, 의사등으로일하고 있으며『어머니(院母)의 감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수 있었다』고한결같이 朴여사에대한 사랑과감사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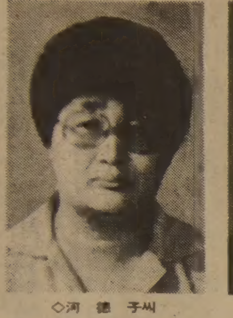
영아원 건물을지을때 그는 손수벽돌을 찍고페이퍼로 문틀을 닦고 니스칠을 하였고, 우유수입금지로 우유를 구할 수 없게되자 영아원구내에60여마리의 山羊을길러 양젖을 자식 아기들에게 먹이는등알뜰하게 영아원살림을 이끌어왔다.

『일시적인 도움은 의타심만을 기르게되므로 일거리를 찾아 自立할수있도록 도와야 한다』는게 朴여사의 주장이며 그는 주변의미망인, 고아, 학생들에게도 항상 自立할때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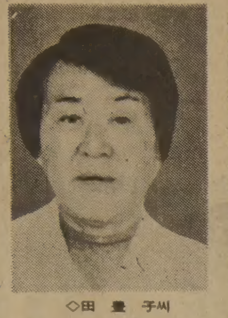
淸原郡의 추천으로 상을받게된 河德子씨는 聖公會 神父의 딸로 태어나 淸州女商을 졸업한후 浮浪人보호사업을 하고있는 朴省澤씨와 결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을 개간하여 오갈데없는 浮浪人과 고아를 수용, 함께 생활하고 있다.

河여사는 院生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국민학교에 축구팀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院生들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뛰도록했다고한다. 그후 大會마다 축구팀이 우승하자 院生들의 사기가 높아진것은 물론 학교에서 院生들을 따돌리던 풍조도 사라졌다. 사기가 높아진 院生들은 학교생활을 열심히하여 學生會長, 부회장을 연달아 차지하기도 했다.

그의 남편은 淸州시내의 자택에 걸인들을 수용하고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해오던 양로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개간한 땅에 약초를 재배하고 소를 기르면서 부랑인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있다.


◇河 德 子씨

◇朴 景 姬씨


◇田 豊 子씨

西太平洋 WHO 서울會議개막

제32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회의가 한국을 비롯한 19개회원국정부대표, WHO및 유엔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2일상오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南農화백本家침입 그림百20여점훔쳐

【光州=聯】光州경찰서는22일 南農 許楗화백집에 몰래들어가 동양화등 1백20여점을 훔친 조용산씨(34·전북群山市 錦洞5)를절도혐의로, 조씨에게 절도를 교사한 李귀훈씨 (사기전과 2범·주거부정)등 3명을 절도교사및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㊼

維石과 滄浪

親熟한 사이…韓民黨의 利害위해봉사
軍政廳 警察지휘관으로 治安에 큰功

나는 民主議院을 중심으로 反託운동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한편 각 사회단체및 軍政당국과도 수시로 교섭을 벌이면서 李承晩박사의 정치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軍政측과의 교섭은 참으로까다로운 일이었다. 그것은 협조관계가아니라 탐색과견제의 관계라고 해야옳았다. 하지장군과 軍政장관인 러치소장이 李박사노선을 방해하거나 비우호적이었으니 협조할 게 없었다. 방해를 하지말도록 공작하는것이 협조를 구하는 길이었다.

이 난 軍政의 通譯정치의 헛점을 이용, 정보를 얻어내려고 애를쓰기도했고 軍政의한국인관리들과도 자주 교섭, 협조를 구했다.

美軍政廳의 상징적인 한국인관리는 警務部長인 維石 趙炳玉과 首都警察廳長인 滄浪張澤相이었다. 그들은 韓國民主黨이 천거해보낸 인물들로 軍政을 돕는 한편 左翼견제에 큰활약을 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사람은 경무부장과 수도청장이란 감투를 쓰고는 한편으로 韓民黨이란「親庭」의 이해관계를 위해 봉사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美軍政의 치안정책에 적극 공헌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도 초창기 韓民黨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들과는 같은 정치가족의 입장에서 陰陽으로 접촉을 가졌다.

維石이나 滄浪과는 청년시절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親해진 것은 내가 귀국한 후였다. 특히 滄浪과는 내가 흥업구락부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난 뒤 그의 水標洞집을 자주 드나들면서부터 더욱 친해졌다. 그당시 우리는 桂洞의 仁村(金性洙)등을 자주 오가며 古書畵를 즐기는 체하면서 日帝의 집요한 감시를 피했다.

滄浪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좌우를 돌아보지않고 추진하는 인물이었다. 판단을 빨리 내리고 그러고는 돌진하는 型이었다. 이에 비해 維石은 좀이고 비교적 원만한 성격이었다. 생각을 많이 해 추진이 좀 더디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신중하고 융통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李박사가 귀국한 후로 나는 이두사람과 빈번히 만나 時局談을 논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당시 滄浪은 5, 6차에 걸쳐 敦岩莊과 梨花莊을 방문, 李박사를 만나고 그의 정치노선에 귀를 기울였다. 주위에서 그런 그를 두고 오해를 살 행동을 한다고 뒷말을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고싶다면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반면 維石은 내가 아는 한 敦岩莊이고 梨花莊이고간에 李박사를방문한 기억이 없다. 언뜻 李박사와 하지의 관계가 날로 심각해지는 분위기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아니었는지…

후일 建國時 軍政에관계된인사는 등용하지않기로한 내막이 있었는데 대단히 어폐있는 얘기겠지만 滄浪의 入閣에는 나의 주장이 어느정도 주효했다. 세번에 걸쳐 공산측의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反共에앞장선 그를 외면한다는 것은 사리에 크게 어긋난다는 얘기였다.

반면 維石과 나완 못지못할 알력이 있었다. 정부가수립되고 軍政이 政權을 이양할때 維石은 「경찰統率網과 각종 시설의 완비」를 이유로 경찰권이양을 6개월가량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미군사령관 콜터중장과 딘軍政장관은 내무장관인 나에게 公文을 보내 48년9월1일 낮12시를기해 軍政의 모든 행정권을 이양한다는 통고를해왔다. 維石은 2차에 걸쳐 경찰청장회의를 소집하고 경찰권移讓의 지연작전을 취했으며 나는 정부의 권위를 위해 그를 구속하게했다.

그러나 維石이 경무부美고문관을 통해 전서류를 보내고 날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썽은 나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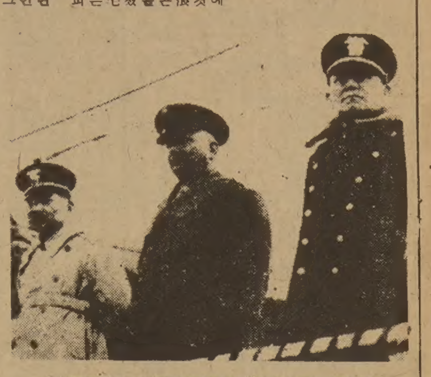
維石과 滄浪은 軍政당시 영의 반공투사들을 많이감싸주었다. 몽든 두사람은 건국의 공로자요 애국자였다. 兩人다 건국후에는 다른입장에서 나라를위해 공헌한것은 역사와 국민이 모두 아는바이다.

나와함께 일했던 애국동지들중에는 金斗漢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세상에선 그를 무식하다, 鍾路뒷골목어깨라고들 하는데 나는 그를 열렬한 애국청년이요 뜻있는 義人이라고 부르고싶다. 단지 못배운게 죄라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金佐鎭장군에대한 日帝의 보복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한번은 右翼청년들이 左翼두목을 살해했다하여 재판을 받고있을 때 방청석의 金斗漢이『저놈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뛰어들어 대신 구속돼 軍裁에서 사형선고를받았었는데 建國직후 난 大田감옥에있는 그를 제일먼저 꺼내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나는 反共청년으로는 北靑年會의 文鳳濟, 金聲柱, 6·25때 이북에서 특공대공작을 했던 韓哲民, 좌익분쇄의 智謀家 郭李斅, 6·25때 赤치하의 서울에서 게릴라 투쟁을 한 孫撰, 조직적인 두뇌의 潘星煥동지등이 떠오른다. 學聯회장이었던 反託의 청년기수 李哲承이야 말할 것 없다.

난 숱한 反共청년들과의 유대및 막후활동때문에 左翼으로부터 「紳士의 탈을 쓴 테러리스트」란 명예롭지못한 말을 듣기도 했다.


◇美軍政시절 警察지휘관으로 雙璧이었던 趙炳玉警務部長(右)과 張澤相 首都경찰청장. (左에서 2번째) 右에서 2번째는 러치軍政장관.

韓代表團 得票작전 피치

IOC開幕앞두고 鄭周永·金雲龍씨등 合流
30일投票…日記者들"왜개최하려는가"질문

【바덴바덴(西獨)=聯】오는88년의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제84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曺相鎬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등 한국대표단은 20일 하오(이하 한국시간) 西獨의 바덴바덴에 도착, 대표본부를 설치하고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曺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인 콩그레스하우스에서 세계각국의 기자들로부터 서울유치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받았다.

특히 한국과 유치경합을벌이고 있는 日本의 교오도(共同)통신을 비롯, 아사히 마이니찌 요미우리신문등 日本기자들은『무엇때문에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려 하느냐』고 물었으며 曺위원장은 『日本은 왜 올림픽을 여러번 개최하려하느냐』고 되묻고『韓國은 IOC회원국으로서 올림픽정신에 충실하고자한다』고 대답했다.

日本에서는 50명의 대표단외에 기자만도 49명에 달해 주목을 끌고있다.

曺회장은 21일하오 콩그레스 하우스에서 북한의 김유순IOC위원과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 김유순과 김득준북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 그리고 3명의 북한기자들이 한국대표단보다 먼저 지난18일 이곳에 도착했다.

북한은 한국의 올림픽유치를 저지키위해 공산권및 비동맹권국가들의 IOC위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鄭周永서울올림픽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21일 이곳에 도착했다.

한편 오까노日本올림픽위원회명예총무는『한국이 日本보다 훨씬유리한 입장에있으나 정치적으로 미묘한점이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림픽유치는 공산권표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표단은 회의장근처에 대책본부를설치, 각지역별로 파고드는득표작전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있다.

88년 올림픽개최를 결정짓는 제84차 IOC총회는 29일 하오5시 올림픽유치 신청국의 제안연설로 시작, 30일밤10시30분 역사적인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曺위원장은 21일하오5시 콩그레스홀에서 시작된 ANOC(국가별올림픽위원회연합) 총회에 참석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들과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하고있다. IOC총회에앞서 제11차 올림픽콩그레스가 개막됐다. 【바덴바덴21日AP電送=聯合】

觀光카지노都市 〈바덴바덴〉

【바덴바덴=南汀鎬특파원】IOC총회가 열리는 바덴바덴은 인구5만의 휴양지인 온천도시로『유럽의 여름수도』라고 불리는 관광지및 카지노의 도시이다. 이곳의 숙박시설은 객실이 5천개인데 1백37개국의 NOC관계자들과 IOC위원등 1천2백명, 취재기자 1천여명이 몰려 경찰관도 1천명이나 배치되어 삼엄한경비를 펴고있다.

西獨연방정부는 이번IOC총회경비로 3천만 마르크(한화약1백억)를 투입했으며 총회기간중 한국을소개하기위해 22일개관된 한국관은 구역청사에 설치되어있고 청사를수리하는데 1천만 마르크가 들었다.

IOC총회는 칼·카르스텐 연방정부 대통령의 개막연설로 시작되며 총회기간중 1백7회의 연설이있을 예정이며 연설시간은 모두 1천2백22분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필리즈 左腕 칼튼 生涯통산 最多 奪三振 투수로
봅·깁슨기록 깨뜨려

【몬트리올22日AP聯=特】필라델피아·필리즈의 좌완투수 스티브·칼튼(36·사진)은 22일 美프로야구 내셔널리그의 생애통산 최다 奪三振 투수가 되었다.

칼튼은 이날 몬트리올·엑스포스와의 경기서 3회말 래리·패리시와 안드레·도우슨을 연속 三振으로 잡아내 생애통산 3천1백18개의 탈삼진기록을 세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봅·깁슨(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의 최고기록을 돌파했다.

금년으로메이저리그 선수생활 16년째를 맞은 스티브·칼튼은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월터·존슨(3천5백8개), 게일로드·페리(3천3백26개), 놀란·라이언(3천2백29개)에 이어 탈삼진기록 4위를 달리고있다.

한국팀 選手團구성 韓日 보디빌딩參加

역도연맹은 제12회 韓日친선 보디빌딩대회(27일·北九州)에 참가할 선수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洪永杓보디빌딩위원을 선임했다.

◇선수단명단 ▲단장=洪永杓 ▲주무=許錄 ▲트레이너=朱正植 ▲선수=金光浩 黃河淵 許元 夏駿植 沈順用 ▲심사위원=金龍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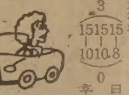
한국후지 첫勝利 日本자매팀 完破 韓日친선排球

한국후지필름은 21일 瑞文女高체육관에서 벌어진 자매팀과의 韓日친선배구경기 1차전서 日本후지필름을 3―0으로 눌러 첫승리를 거뒀다.

◇1차전적
한국후지 3 (15-10, 15-10, 15-8) 0 日本후지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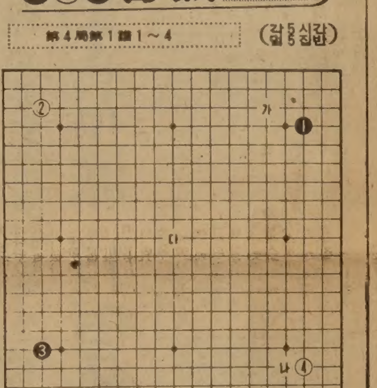
"대그우드, 내사사로운 문제를 자네와 의논해야겠네" "그러시죠"
"마누라는 내가 자기한테 흡족히 해준다고 생각지 않고있어"
"그렇다면말예요, 사장님은 사모님께 최근 뭘 해드렸죠"
"그게 이문제하고 무슨상관이야?!"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第1譜1～4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敗〉
黑(6段)徐能旭〈1敗〉



徐6단은 鄭4단에, 鄭4단은 張秀英5단에 각각 첫판을 져서 1패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바둑은 이겨 1승1패가 될경우 잘하면 도전권도 바라볼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연2패를 하면 자칫 시드組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너무도 큰차이를 가져오는 1패끼리의 대결인지라 자연 필승의결의로 임하게 되는데 이바둑은 처음부터 보기드문 配石·布陣으로 이채를 띠었다.

우선 黑1, 3의 대각선小目. 옛날부터 대각선포석은 好戰的이라는 평이었으나 그렇다고 徐6단이 싸움만 일삼는다는 뜻은 아니다. 黑3을 우하귀에 두는 편면 단조로와진다해서 대각선포석으로 입체적인 진용을 설계하는것이 근년의 유행이라고 한다.

對角線의 中央은「天元」

이에대해 白은 2에서4. 역시 대각선으로 귀를 차지한것은 자연의흐름이지만 단지 그것이 모두「3·三」인데서 鄭4단의 독특한취향을 볼수있다.

「3·三」은 원래 귀를 한수로 완전히 차지하고 장기전을 피하여 최소한 덤만큼 이기려는 의도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바둑이란 애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법. 어떤변화가 생길는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게제에 중급자를 위하여 한가지만 보충한다. 白4를「가」에 걸쳐 黑이 우하귀「나」의 곳에 선점하면 3귀를 차지하는 1, 3, 5秀策流포석이 되어 黑이 편하다는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그건 그렇고, 白4까지되었을때 徐6단은『좌우동형이면 여기가 급소인데』하고 天元을 가리키면서 티없이 웃었다. 정말 黑5를「다」에 둘 요량일까. 【一凡】

주간女性

流星의 賦 〈19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明暗 ⑩

늙도록 군졸로 있다가 병으로 물러설수 밖에 없었다는 이수상은 이순신과는 같은 고향이라고 했다.

『세상이 잘 되려면 그런 어른이 기를 펴고 살 수 있어야 하는건데…』

하고 말꼬리를 흐리곤

『무슨 까닭으로 그 어른을 찾느냐』

고 물었다. 계남은

『나는 오위의 사용으로 있다』

고 전제하고 해이된 군기 속에 살기가 역겨워, 훌륭하시단 소문이 나 있는 어른을 찾아 하교(下敎)를 받고자 한다는 뜻을 솔직하게 말했다.

『군졸이란 원래 그러한 것이오』

이수상은 이렇게 말해 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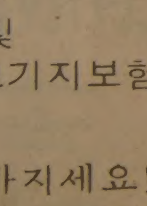
『이순신 어른의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내 젊은 군관에게 한마디 하겠소이다』

하곤 다음과 같이 덧붙여 놓았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란 말이 있지오? 상이 탁하면 아랫사람들만 깨끗해야 한다 말이오? 군졸이 무슨 신명으로 기강을 준수하겠소. 처자들은 배가 고파 항상 처량한 몰골이오. 겨울은 어떻겠소. 장차이 있소? 노부모를 모신 군졸들의 마음은 어떻겠소.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자는 기강이오. 당상(堂上)에선 매일 처럼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데, 백성이야 죽건 살건 아랑곳 없이 서로 벼슬을 차지하고 국록을 탐하려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굶주린 창자를 움켜 쥐고라도 군졸들만 기강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썩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썩어가는 나라라도 지켜야 한는건가요? 나는 내 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런 까닭에 두려울것이 없소. 지금 내 팔을 보시오. 아내는 작년에 죽고, 아들은 재작년에 싸움터에서 죽었소.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냈소. 나도 몸이 조금 편한 날이면 이웃집 일을 보아주기도 하고 시정에 나가 심부름도 해주어 이렇게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오. 그런데 내게 죄가 있다면 스무살에 군적에 들어가 이날 이때까지 군졸로서 나라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 뿐이오. 바로 이 내 팔이 군졸들의 거울이 되는 거요. 그들이 갈 곳이 바로 이 움막이며 그들의 몰골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요. 내 하나의 불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나와 같은 처지가 부지기수란 말이오. 어제 비참하기 한량이 없었고, 오늘 비참하기짝이없고, 내일은 더욱더욱비참하게 될 군졸들이 무슨 근력으로 무슨 바람으로 기강을 엄히 지킬 것이냔 말요. 당신의 부하가 명령이 있었는데도 오지 않았다면 그사이 품팔이 하러 갔거나, 앓고 누었거나 했기 때문이오. 그 중에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한 놈도 있겠지오만 그것도 모두 그럴사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요. 그런 사정을 몰라주고 명령을 안들었다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소. 당신의 상사는 군졸들에게 뭔가를 얻어 먹고는 감아 준 것이 아니라 딱한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오. 나도 우리의 군졸들이 이래선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오만 어떻게 할 수 없는일 아니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졸을 이렇게대접할 수 있소? 굶주린 창자로선 충성(忠誠)도 못하오…』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 922-3111 R) 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사교댄스 (강습)

기 간: 10월8일~12월10일(매주목요일 저녁)

지도교사: 김 유 수(현 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ass교사)

초급반: 7:30~9:00 부르스, 지루박, 월츠, 도롯도
중급반: 9:00~10:30 탱고, 차차, 폴카
고급반: 9:00~10:30 고급스텝

장소및등록처: Y. KIM
TRINITY UNITED CHURCH
427 Bloor St. W.

문 의 처: TEL: 922-8435

회 비: 싱글 $45, 커플 $70

※체계적인 교안과 실습을 통해 철저한 책임지도를 함.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운전사機智로 택시强盜 검거

알몸 트렁크에갇혀 2시간끌려다녀
LPG연료탱크밸브 잠궈 車세우게

犯人은 동료運轉士

승차거부로 면허정지와 벌금형을받은 스페어운전사가 동료운전사를 서울에서 경기 楊平까지 유인, 칼로 찌르고 현금5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 미수극은 강도를당한운전사가 알몸으로 택시뒤트렁크에 감금된채 2시간동안 끌려 다니다 트렁크에 설치된 LPG연료탱크의 밸브를 잠그는 기지를 발휘, 범인을 잡게 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것。

行人에게 소리쳐 救出돼

21일 하오7시45분께 서울 東大門區忘憂2洞478 유성주유소 앞길에서 고려운수 소속 스페어운전사였던 李永洙씨(24·서울道峰區雙門洞341)가 서울4바2718호 한시택시 (운전사 朴勝德·38)를세워 1만4천원에 경기楊平까지 가자면서 올라탔다.

시멘트부대에 각목과 과도를 숨겨 택시에탄 李씨는 자신이 중장비기사인데 서울에서 부속품을 사가는길이라고 속이고 하오9시10분께 택시가 楊平邑을지나 春川쪽 첫 검문소인 경기楊平郡楊平邑倉垈里 驪州쪽 비포장도로를 3백m쯤 지났을때 운전사 朴씨에게 차를세우게 하고 준비한 각목으로 朴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운전사 朴씨가 반항하자 범인 李씨는 숨겼던 과도로 朴씨의 왼쪽팔과 어깨등을 마구 찌르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팬티만 입힌채 뒤트렁크 안에 밀어넣고 잠갔다。

범인 李씨는 차안에 벗어놓은 운전사 朴씨의 운전복과 지갑속에서 하루 수입금 5만5천여원을 꺼낸뒤 서울쪽으로 차를 몰아 달아나다 검문소를 발견하자 다시 차를 돌려 洪川쪽 샛길로 접어들었다。

트렁크속에 갇힌 朴씨는 피가 흐르는것을 막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의식을 가다듬다가 기지를 내 트렁크속에 있는 LPG 연료통 밸브를 잠가버렸다。

갑자기 연료가 끊어져 차가 멈추자 범인 李씨는『차가 고장이 났다』고 투덜거리며 차에서내려 고장난부분을 찾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부근을지나던 주민 서경학씨(23·목축·경기楊平郡龍門面三星里)등 3명이 밤늦게 도로변에 멈춰선 택시를보고 이상히여겨 다가갔다가 운전석 옆에서 피묻은 운전복을 발견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몰려든것을 눈치챈 트렁크속의 운전사 朴씨가『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범인은 국도쪽으로 달아났다。

서씨등은 50m쯤 범인을뒤쫓다 어둠때문에 범인을놓치자 다시 택시로 되돌아와 트렁크속에서 朴씨를 끌어낸뒤 인근 행정전화로 楊平경찰서 龍門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대에 수사대를 잠복시켰다가 22일 상오4시께 元德역으로도망쳐 서울로가는 열차를 타려던 범인李씨를 붙잡았다。

운전경력2년인 李씨는 경찰에서『지난14일 승차거부로 10일간 면허정지를 받고 벌금2만원을 물게된데다 생활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司法府 행정公務員 연고지 配置

【春川=聯合】 金容喆법원행정처장은 22일 사법부 행정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연고지 근무를 해결해주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채용시험을 도별로 치른뒤 연고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患者食에도 얌체商魂

患者입맛 아예외면…營養價도 의심스러워

市中음식값보다 비싸기도
私食해도 治療費에 식대合算
營養士없는곳도 20%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병원의 환자식(患者食)이 너무 부실하다。환자의 입맛에 맞추기는 커녕 도저히 먹을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것이 보통이고 영양가도 의심스럽다。그런데도 값은 일반시중 음식값보다도 비싸며 환자가 사식을 먹었을때에도 버젓이 치료비에 계산되는 얌체성까지 보인다。

그래도 국·공립종합병원의 경우는 다소 낳은편이지만 상당수의 개인병원은 형편이 말이아니다。그래서 환자들은 그렇지않아도 의료숫가가 오르기만하는 이즈음 환자식에까지 이윤을 남기려는것은 지나친 상혼으로밖에 볼수없다면서 일정한 기준이 빨리 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병원중 10~20%가 영양사마저 두지않고있는게 현실인만큼 외면만을 할수가없다。

일반식이 한끼에 1천2백원, 특식이 1천6백원인데 식사내용은 밥과 국, 기타반찬 3가지。싫든 좋든 이환자식을 먹을수밖에없는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너무 비싸고 맛이없어 먹을 수 없다』는 불평이다。환자들에 의하면 매끼니마다 한두가지의 반찬이 달라지긴하지만 국은 콩나물이나 무우 또는 시래기국이 대부분이고 반찬은 대개 물김치나 생선조림에 오이무침, 감자조림, 고구마줄기나물등이 겹들여져 특별히 영양을 섭취해야할 환자들을위한 식사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병원 715호실에 입원한 林모씨(28)는『병원식사가 시중의 5~6백원짜리 백반보다 나을게 없다』며『많은 환자들이 병원식사를 외면하고 가족들이 갖다주는 식사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염으로 입원한 朴모씨(42)는『위장병환자에게 고추가루투성이의 반찬이나 고구마줄기같은 소화하기 어려운 반찬을 주는 경우도 많다』며 환자증세에 따른 급식을 아쉬워했다。

이밖에도 일반식 1천2백원, 특식1천6백원씩하는 H병원이나 일반식 1천2백원, 특식 1천7백원씩하는 G병원 S병원등대부분의 사립또는 개인종합병원에 입원한환자들도 부실한 환자식에 대해 큰불만을 털어놓고있다。

비교적 규모가큰 종합병원측은 이에 대해 영양사를 두고 성인기준 1일 평균 2천7백칼로리의 영양식사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치료식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조치하기때문에 식대가 비싸게 먹히고 환자의 입맛에 맞지않을때가 많다고해명하고 있다。그러나 환자들은 환자식이 시중음식값에 비해 너무 비쌀뿐만 아니라 죽이나 미음을 먹는환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대를 계산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환자들은 개별조리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먹힌다는 병원측의 주장에 시중음식점을 예로 들어 반증한다。즉 5~6가지음식을 취급하는 시중음식점의 경우 하루1백여명의 손님이 찾으면 수지가 맞는데 5~6백명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시중음식값보다 비싸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1백여개 서울시내종합병원중 영양사를둔 병원은 80~90%선。그나마 베드수에 맞춰 적정영양사를 둔 병원은 50%에 못미친다는게 관계자의 고백이다。

필요한 영양사를 확보하지 못한 종합병원이나 전혀 영양사를 두지않은 병원들은솔직하게 병원경영만으로 환자식을 비싸게받지 않을수없다고 털어놓기도한다。

이에 비해 서울大병원이나 서울적십자병원등 국공립병원의 식사는 그런대로 괜찮은편。환자들은 값도 싸지만 환자가 먹을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병원식대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병원측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사립·개인종합병원의 경우 특식이 1천6백원에서 1천7백원선, 일반식이 1천3백원수준이고 국·공립병원은 특식이 1천4백원, 일반식이 1천원선으로 사립·개인병원이 3~4백원비싼편。

식사구분는 2인용이하의 병실에 입원했을때 특식, 3인용이상 병실에 입원했을때 일반식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한 처방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는 특식기준으로 계산한다。

대한병원협회관계자는 현재 각병원마다 식사의차이가 많아 일정하게 가격을정할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면서현재 진행중인 표준화사업계획에 따라 서울시내 1백개종합병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시설 규모를 따져 각등급에 맞는 시설과 그에 합당한 식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方敬俊기자】

◇대학미전에입상, 수상하러 상경했다가 목졸린 시체로발견된 朴尙恩양。

電話건 女人을 찾아라

痴情살인추정 海外研修동기생 중점搜査

女大生피살사건

상경 여대생 朴尙恩양(21·부산産業大)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2일 강도살인을 위장한 치정살인으로 추정, 朴양의 주변남자와 미국연수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朴양을 전화로 불러낸 여인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있는 것으로 보고 수배했으나 이날 하오 현재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朴양의 시체가 발견된 한국상사 인조석야적장 인조석 더미에서 20m가량 떨어진 풀숲에서 朴양의 왼쪽 슬리퍼 한짝을 찾아내 범인들이 朴양을 살해한뒤 슬리퍼를 숲속으로 던져 증거물을 감춘것으로보고있다。

朴양이 신고나간 슬리퍼는 흑갈색끈에 같은색깔의 앞굽이 쳐진 새것으로 어머니金信子씨(49)가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낮12시부터40분동안 서울지검 동부지청金基俊검사의 지휘로 시체를부검, 목을졸린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명됐는데 朴양은 목을 졸리는순간 벽이나 방바닥에 머리를부딪치면서 뇌출혈을 일으킨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른쪽 무릎 안쪽에 긁어채인듯 피하출혈이 있었고 오른쪽 귀밑에서 가벼운 이빨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발바닥에서는 자갈을 밟은 자국이 발견되었다。경찰은 朴양의 손톱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채취,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같은 1차부검결과에따라 朴양을 잡아는 범인이 여자친구나 다른사람을 시켜 朴양을 불러낸뒤 욕을 보이려다 반항하자 살해한후 강도를 위장하기위해 돈을뺏어간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21일에이어 22일에도 張모군(21·K대3년)등 해외연수동기생 5명의 신병을 계속확보, 당일의 알리바이를캐고있으나 용의점을 발견하지못했다。

경찰은 또 朴양이상경하기 직전의 행적을 좇는 한편 평소 가깝게지냈다는 金모사장(43)과 부산지역의 연수생 클럽인 「EXF」회원들에대해서도 부산경찰과 공조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朴양의 미국연수동기생중 朴양과가장 가까왔다는 張군에대해 집중적인조사를펴고있는데 ▲張군은 17·18양일간 朴양과만났으며 ▲특히朴양이살해된18일밤에는 朴양과 같이 朴양의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朴양이 살해된다음날인 19일새벽 5시께 자기집응접실소파에서 자고있던 여동생(19)에게『왜거기에서 자고있나』고 잠을 깨운점으로보아 張군의 사건당일밤 행적이 모호한것으로 드러났다는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우발적인 단순강도범행일 가능성도 감안, 지난19일밤 朴양이 강제로차량에 태워져 끌려갔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본 사람을 찾기위해 장미아파트일대를 경유하는 버스운전사등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도 계속펴고있다。

【釜山=聯合】 부산南部경찰서는 22일 朴尙恩양이3년전부터 부산모대학 공대생인 鄭모군 (23세가량)과 가까이 지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鄭군을 찾고있다。

鄭군은 여러차례 朴양집을 방문한 일이 있고 피살사건이 보도된 21일 하오 6시30분과 7시30분께등 2차례에 걸쳐 朴양집에 전화를 걸어『박양이 죽었다는 뉴스가사실이냐』고 묻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船長등 7명 入件
전관수역침범 日船

【麗水·木浦=聯合】 해경木浦기지대는 21일하오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으로 조업한 일본어선 와까에마루(若榮丸)선장시바타·이찌시씨(48)등 선원7명을 영해법 제7조에 의한 전관수역침범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날 光州지검 長興지청의 수사지휘를받아 이들을입건했는데구속여부는수사결과에따라처리키로했다。

일본어선이 우리영해를 침범 입건되기는 올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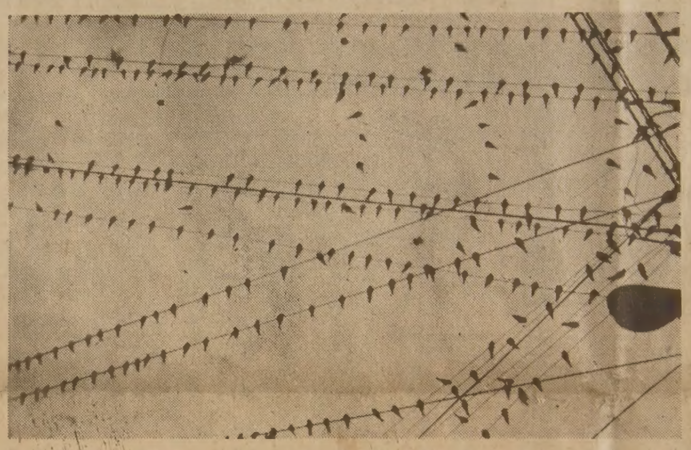
대규모 히로뽕密造團·중독자등 3개派 17명檢擧

서울지검특수3부 (黃相九부장·金成浩검사)는 22일 서울·釜山·大邱·坡州등지에서 암약해온 대규모 히로뽕밀조밀매사범과 중독자등 3개파 17명을검거, 이가운데 1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21㎏과 밀조기구, 주사기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범 辛正奎씨(33·전과4범·부산中區寶水洞1街62)는 지난5월초부터 3회에걸쳐 원료공급책 金福祚씨(47)로부터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백5㎏을 사들인뒤 제조기술자 金秦圭씨(36)를 시켜 완제품48㎏을 만들어 판매책 林明祚씨(36)등 3명을 통해 35㎏을 팔고 나머지 13㎏은 집장롱속에 숨겨두었다가 적발됐다。

또 밀조범 朴榮圭씨(49·전과3범·부산東萊區蓮山洞1299의24)도 지난달18일 원료공급책 文聖鳳씨(42·전과6범)로부터 염산에페드린을 사들인후 대구北區七星洞1街244金秉俊씨(39)집 창고에 밀조시설을 차려놓고 히로뽕 완제품 8㎏을 밀조, 팔기직전 붙잡혔다。

한편 히로뽕중독자인 尹潤李(46·골프장직원)·李南洙(39·고물상)·李輝英씨(50·운전사)등은 지난해 8월부터 히로뽕 판매책인 趙萬來씨(42·전과3범)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각자 1인과함께 50여회에 걸쳐 회당 히로뽕 0·03g정도를 물이나 증류수에 타서 혈관에 주사하거나 마셔와 중독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강남갈제비떼들… 여름내 보고들은 숱한 사연들을 속삭이기나 하듯 전선에 모여앉은 제비떼가 늦가을 뙤약볕을 즐기고 있다。 【충북陰城郡笙極面=鄭範泰기자찍음】

(오)(늘)(秋)(分)

23일은 낮과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날을 지나면서 가을이 깊어진다。그러나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이상난류현상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돼 가을속의 여름을 겪고있다。1주일 전만해도 전국의 낮최고 기온이 21~22도였으나 21일에는 29도까지 올라가 초여름보다 높은 낮기온을 보였고 반면밤엔 서늘한 가을기온을 보여 낮·밤기온차(日交差)가 11도나되어 감기환자가 늘어나고있다。한편 중앙관상대는 최근의 이상고온은 필리핀근해에서 발생한 태풍 클라라가 중국 대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태평양의 따뜻한 기류를 한반도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2~3일내로 태풍이 약화되면 평년기온으로 돌아가 선선한 가을날씨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208>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 불다⑨

해운대에서의 생활은 내게 있어서 꿈과같은 것이었다。아래층 레스토랑에서의 우아한 식사나, 파도가 발밑까지 달려오는 모래밭의 산책, 달빛비친 먼바다를 내려다보며 허밍으로 슈베르트의 노래를 가만히 불러보던 시간등, 내게는 모두가 꿈에서나 그리던 생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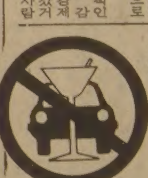
처음 며칠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않고 그런생활을 영위했다。윤나미 모녀와 내가 한방을쓰고 그와 유감독이 옆방을 썼는데, 일에 열중해서 그들은 우리방의여자들을 돌볼겨를도 없는것처럼 보였다。윤나미와 나는거리의 찻집이나 기념품 가게에도 들르고, 그녀가 이끄는대로 호텔에 딸린 술로트 머신 점포에도 들어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권여사는 대체로 잠이 많은 편이었다。두번째 날 광복동에서인가 의상실을 한다는 친구를 찾아보겠다며 혼자 외출했던 일을 빼고 그녀는 거의 밤에 틀어 박혀 잠을 자면서 보냈다。

그렇게 사흘을 지낸 뒤 밤이었다。여자들을 이렇게 버려두어서 미안 하다, 그동안 혹시 제각기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 것은 아니겠지, 하고는 유감독이 한턱 내겠다며 우리들을 나이트 클럽으로데려가 주었다。우리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아니고 보다 큰 호텔에 딸린 호화로운 클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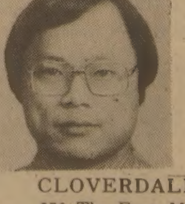
나는 전에 나이트 클럽 따위에 드나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할 뿐이었다。그러나 나는 차츰 익숙해졌으며, 두컵쯤 맥주를 마시고 나서는 플로어에도 나갈 수 있었다。처음에 나를 이끈 사람은 유장훈 감독이었다。두번은 사양했고, 세번째 하는수 없다는 듯이 그를 따라 플로어로 나갔는데, 그때쯤은 한산했던 클럽이 어딘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만원이 된 뒤였다。나는 윤나미나 플로어에 나온 다른 여자들처럼 멋진 춤을 출 수는 없었다。조금씩만 몸을 움직여 나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처음 망설여졌던 기분과는 달리 편해진다는 느낌이었다。음악이 고고 리듬에서 블루스로 바뀌자 유장훈감독은 자리로 돌아가려는 내 팔을 잡았다。나는 당황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그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는 내쪽에 시선도 주지않고 있었다。윤나미만이 환영의 뜻으로 반짝 웃으며 박수치는 시늉을 했을 뿐이었다。나는 어쩔수 없이 유장훈 감독의 가슴에 안겼다。블루스의 스텝도 나는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았다。그러나 뒤에있는 그의 시선이 자꾸만 나를 잡아당겼으며, 적이 포옹하려는 유장훈감독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느라고 내 발은 곧잘 엉켰다。

『들어갈래요』

내가 호소하듯 말하자 유감독은 선선히 나를 놓아주었다。자리로 돌아와서 나는 끝 그가 나를 플로어로 데려가주었으면 하고 마음 속으로 바랐다。내 거절로 블루스를 중간에서 그만두고돌아온 유감독이『미스 안은 아무래도 스승께서 손을 봐주어야겠던데』하고 말했고, 새로 고고 리듬이 시작된 뒤에는 윤나미와 권여사도『한 선생님, 제발 언니 좀 데려가 줘요』『이런 데 오면 스승도 제자도 없는 거야。잰체하지 말고 어서 나가요』하고, 그를 떼밀다시피 했지만 그는 움직이려들지 않았다。나는 잠자코 그가 나를 플로어로 데려가줄 때를 기다리며, 그가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번 여행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또 그의 밤에 침입하는 따위로 그를 귀찮게 하지는 결코 않겠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주위의 권고를 견디다 못해 겨우 권여사에게『그래요?그럼 나갑시다』하고 딴청을 피우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플로어로 갔을뿐이었다。


음주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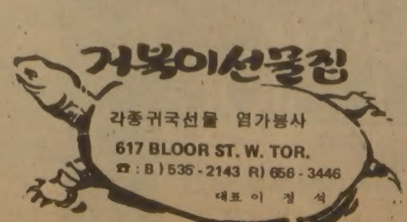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 : 30AM~6 : 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11AM 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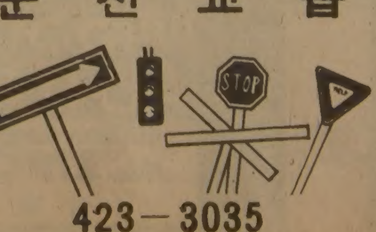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loor Bathurst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86년에 産油國된다"

政府、에너지資源開發 5년계획 확정發表

油田탐사·脫石油정책 竝行

原電·석탄·가스등積極개발

總12兆원投入

原油2億6천만배럴·依存度49.8%

發電시설 현재의2倍 千8百萬kw로

정부는 오는 86년까지 우리나라도 産油國이 되도록 국내외油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석유불안시대에 석유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脫石油政策을 적극 추진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제5차 5개년 에너지資源부문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에너지자원 실천계획에 따르면 ①석유의 안정공급기반구축을위해 국내외 油田개발, 석유의 안정확보및 비축계획의 적극추진②脫石油政策추진을 위해 原子力 중심의 脫石油電源개발, LNG와 代替 에너지의 개발촉진③자원개발의 극대화를 위해 대륙붕 등 資源개발, 석탄증산과 해외자원개발의 촉진④에너지절약과 이용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자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중 연평균 7·6%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7·2%가 증가하여 80년의 4천4백만톤(石油換算기준)에서 86년에는 1·5배가 늘어난 6천7백만톤으로 신장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 總量 需給對策을 마련했다.

부문별로 보면 原油需給은 기간중 연평균 5·6%씩증가되어 80년1억9천8백만배럴에서 86년엔 2억6천1백만배럴로 절대량은 늘어나지만 석유의존도는 현재의60·3%에서 49·8%로 떨어지는것으로 잡았으며 석탄생산은 2·5%씩 증가하여 1천9백만톤에서 2천1백50만톤으로 증산할 계획이다.

發電시설은 9백만㎾에서 2배가 늘어난 1천8백만㎾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의主宗인석유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는공급선을현재 7개국에서 12개국 이상으로 다변화하고 석유비축시설을 90일분으로 확충하며 정유시설을 하루 79만배럴에서 1백만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동자부는 석유불안시대에 대비하기위해 국내외油田을 적극개발할 계획이다. 韓日대륙붕 공동개발은 79~87년까지의 總義務開發孔數중 아직 개발하지 않은 8개孔을, 油開公과 美자펙스社와의 공동개발키로한 제4광구는 83년까지 3개孔을 탐사, 시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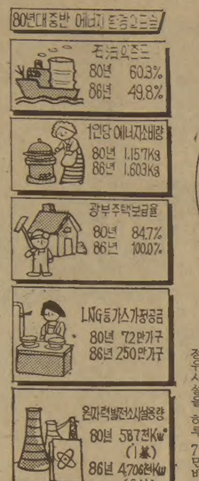
또한 해외油田개발에도 적극참여하여 현재진행중인 인도네시아의 西마두라해역의 油田개발은 84년까지 8개孔의 시추를 완료하고 南美의 페루와 中東 일부산유국등으로부터의 油田개발참여요청에도 신중히검토해서 참여할 방침이다.

脫石油政策을 적극추진하기위해 原子力,石炭,가스등 脫石油電源을 적극개발하며 원자력발전시설은 현재의 1基59만㎾에서 8배가 늘어난 6基 4백77만㎾수준으로 늘리고 공해가없는 가정연료인 LNG(液化천연가스)를 85년까지 1백50만톤 도입,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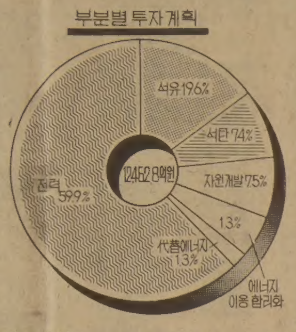
이에따라 LNG등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81년 72만가구에서 86년엔 총가구의 30%인 2백50만가구로 늘어나게된다.

또한 전국을 3백45㎾ 초고압送電網으로 送·配電시설 확충할 계획이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소요금액은 약 12조4천6백23억원으로 총 국가투자액의 12·3%를 차지하는데 이중 63%인 7조7천9백95억원은 內資로, 나머지 37%인 4조4천4백만달러는 外資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분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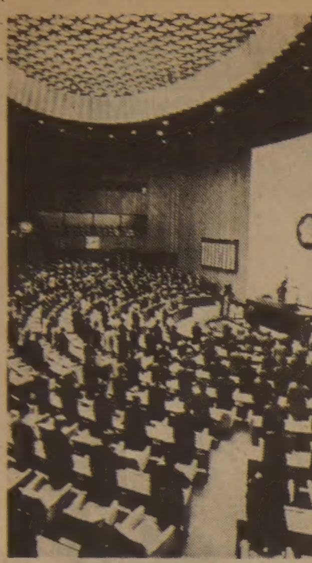


國會法개정안등 論難일듯

定期國會 개회

豫算案등 百60여案件처리

"새時代부응하는 國會像정립을" 丁의장開會辭



◇새시대의 새國會像 정립이라는 召命을 안고 문을연 제108회 정기국회 개회식。11代국회 開院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새로운 國會像정립을 위해 의원들이 갖는 다짐만큼 국민들의 興望도 어느때보다도 높다。

제108회 정기국회가 21일 하오2시 丁來赫국회의장 사회로 俞泰興 대법원장,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이 참석한가운데 개회됐다. ★관련기사2면

11代국회의 첫 예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9일까지 90일간의會期로 열리는데 會期중 총규모 9조 5천9백56억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追更예산안, 작년도 決算을심의처리하며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신설등 각종稅法案과 公職者윤리법안, 民韓黨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등 1백60여건의 議案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民韓·국민당등은 교육세신설에 반대하고 民正黨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고있어 이의안들은 이번 국회의 큰 爭點이 될것으로 보인다.

◇丁국회의장

丁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의미와 내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되새겨볼때 이번제108회 정기국회가 지니는 막중한 의의를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제5공화국 출범이후 새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첫 예산국회이니 만큼 새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수화있는 國會像을 정립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제반법률안등을 심의함에있어서 國力伸張과 民生安定이라는 공동의목표를 추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理想的인『파트너십』을 발휘하는 하나의定型을모색하고 정착시켜야되겠다』고 강조하고『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脈絡에서뿐만 아니라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始動연도 예산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낭비없고 효율이 極大化된 예산안이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丁의장은 특히 오늘날 우리를 넘보는외부의 敵은 공산주의 침략세력이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내부의 敵은 혼란을 야기시킬수도있는 잠재 요소들이라고지적하면서『따라서 議政심의의 초점은 공산주의 침략을 격파할수 있는 안전보장의 강화는 물론 低所得층을 추방하여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등 부조리와 불편의 요소들을 추방하여 정의롭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집약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2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會期결의와 함께 空席중인 文公委員長을 선출하고 50명규모의 豫決委를 구성하는데 文公위원장에는 韓柄寀의원(民正)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23일부터 3일간 의원외교보고를 청취하고 10월2일에는 南悳祐 국무총리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施政연설을 들은 뒤 6일부터 6일간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國會法 안고치기로 民正

各黨、定期國會對策 협의

民正、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는 21일 각각 정기국회개회에 즈음하여 의원총회와 간부회의등을 일제히 열어 院內對策을 협의했다.

民正黨은 20일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진데이어 21일상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단과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현 국회법을 이번회기중 고치지않고 定着化 시키며▲예산안처리를 둘러싼 협상을가능한 배제하고▲豫決委와 常委의 倂行운영으로 긴밀한기능 補完을 기하고▲국민생활과 直結되는 政策案이나 公約사업등을 반영하도록 의원立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民正黨은 또 이날黨職者회의에서 敎育稅중 財産稅50%부가는 서울、釜山、仁川、大邱등 6개도시의 모든납세자로 정해있어 납세의무자가너무많고 부담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 새로운 財源을 개발하는한편 납세의무자의 지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담액을 조정키로 의견을모았다.

또 소득세부담을 줄이기위해 年末보너스에서 일시에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강사료등 빈도가 적은 수입에대한 源泉징수도 지양하는한편 零細사업자에 대한 公平課稅를 위해 영세사업자의 소득표준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고 李와玩 대변인이 밝혔다.

또 부가세는 業種과業者간에 공평하게 과세되도록 하며 기술개발지원을위한 稅制상의 뒷받침을강화키로했다.

中共、衛星 3개 同時발사

史上처음 單一로키트로 運搬

【北京20日聯合】 중공은 20일 사상처음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1개의 운반로키트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주탐사계획 추진에 있어 일대기술적개가를 이룩했다.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은 중공이 3년여만에 처음으로 쏘아올린 이번 인공위성들이우주물리학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3개위성들이 현재 우주궤도에서 정상적인기능을보여주고있다고말했다.

신화사통신은 이 인공위성들의 임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더 이상의 구체적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서방전문가들은 2개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것으로서 중공은 일찌기 이같은 기술수준을 과시한바 없었으며 특히 복수위성의 동시발사에 막대한 경비가 들기때문에 중공의 현 긴축 경제계획을 감안할때 놀라운일이라고지적했다.

가을國展 서양화具象 大賞「土着別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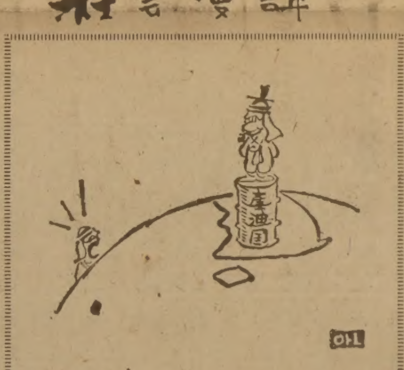
◇21일 발표된 제30회 가을국전에서 서양화구상부문의 대상수상작으로 뽑힌「土着別曲」(申奎燮作)。

自由中國 內政部 추장왕部長 내한

自由中國의 추·장·왕(邱創煥) 內政部長(내무부장관·사진)이 徐廷和내무부장관의 공식초청으로 22일 하오4시30분 CPA便으로 來韓한다고 21일 駐韓자유중국대사관이 발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86年엔 우리도?!…

地平線

[illegible]리나라말엔 군자가 [illegible] 깃이 많다。이렇게 군이 [illegible]한것은 먼 옛날 단군 때부터 국민개병이던 것의 유산이라고한다。▼단군때는 熊加가 군대를 장악하는부서였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수도를 경비하는 宿衛隊와 邊境을 지키는 備邊隊로 갈라졌다고 한다. 신라때는 15세 이상의 남자를 징병해서 侍과 誓幢을 要地에 배치했다。고려 太祖때엔 衛와 領을 만들어 衛엔 38명、領엔 1천명 군사를 두었다。親衛隊、別武班、三別抄가 생긴 것도 고려때다。그러던 것이 李太祖에 이르러 衛를 三軍府로 통합했고 그후 각도에 兵營과 水營이 설치됐다。高宗37년(1900년)에 이땅 군대도 근대화의 첫걸음으로 지금과 같은 분대、소대、연대、여단으로 불리게 되었다。이조 때의 우리군대는 1907년 일제탄압으로 해산의비운을 맞았는데 그후8·15광복으로 다시 創軍되고 6·25와 월남전 참전을 겪으면서 오늘의 한국군은 最强 現代軍으로 급성장한 것이다。▼創軍 33주년을 맞아 성년한국군의 국가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를 규명하고 앞으로의 발전지표를 설정하기 위해「軍隊와國家發展」이라는 주제로 육사에서 제1회 화랑대국제학술심포지엄을 어제부터열었다。우리군이갖는 최초의 국제규모학술잔치인 이번 심포지엄에서 咸秉春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한국군은 한국서 가장 근대화된 분야가 되어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게되었다」고 밝혔다。軍의 국가에 대한 기여는①집단생활로 표현하는 단결심고취 ②각지방을 다님으로써 얻는 산지식 ③리더십 ④애국심등을 길러주었으며 ⑤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라고 咸교수는 지적했다。그러나 민간부문에 군의 개입이지나치면 이제까지 군이 쌓아올린공적을 무너뜨릴수도있다고 咸교수는 덧붙이고있다。▼미국의 헌팅·비넨박사는 미국에서도 군대의역할에관해 50년대엔 부정적인 입장이 일부 있었던것이 60년대에 이르러 군대는 능동적조직체로서 과도기적사회를 근대화하는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군대는 理性、技術、發展 지향적이고 교육、숙련기술、전문성、조직성을 구비했기때문에 近代化의 주체가 될수있다는 것이다。▼일본이 工業國으로 발전하는데는 그들 海軍이 近代化의 主役노릇을 했다고도 하지만 우리군대의 近代化기여도는 [illegible]장하다。군에서 기술을 배운 일군이 많은가하면 요즘은 行政엘리트층에도 군출신이 적지않다。이제 成年한국군이 스스로를살피는 국제심포지엄을열고 내일을위한 國家近代化와 軍隊의역할을 이론적으로 가다듬는한계제를 맞은것은 반가운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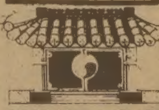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9
은: 온스당 US 10.1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532-2727

제1회 카나다 한국인청소년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카나다 교포청소년들이 모국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교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1981년10월10일(토) 오후6시30분
장 소: 한 인 회 관
신청마감: 10월5일

〈우리말 잘하기대회〉
자 격: 만12세 미만
제 목: 어머니, 한국말, 우리집, 한국
제한시간: 3분~5분까지

〈웅변대회〉
자 격: 12세이상 중, 고교생
내 용: 2세교포들의 모국어교육의 중요성
제한시간: 7분
시 상: 상장및 부상
각 최우수상, 1, 2, 3등, 장려상, 참가상
연 락 처: 이인용(789-7352, 222-3076)

공동주최: 한·카 청소년문화협회, 라이온즈클럽
후 원: 한인회, 토론토한국교육원, 노스·욕한글학교, 씨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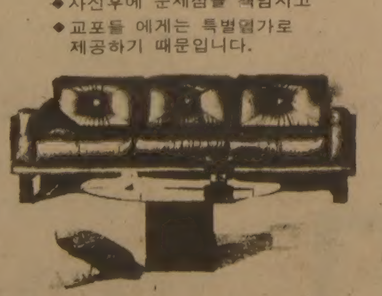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 $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부담)
ASKING: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日、테크노폴리스 時代로

高度기술産業 집약

人口 5萬규모 小都市건설

産業공장·住居지역등 區分

【東京20日AP聯=聯合】일본은 전국에 列島처럼 흩뿌려있는 고도의技術집약·도시群(테크노폴리스) 건설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集約도시群은 저마다 산업, 기술개발, 고급기술문화중점을둔 소도시들이 한무리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일본정부는 21세기에 예상되는 새로운 도시형태가될여러 기술집약도시중 우선하나만이라도 1990년 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다.

일본은 美캘리포니아州 북부에 형성된 「半導體」(실리콘)계곡」의 성공에서 기술集約형도시群을 착상했다. 일본위 신계획은 공해없는공장과 대학·연구소·신제품개발실험소들과는 연구촌과 주거지역을 한데 묶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으로되어있다.

따라서 이계획은 일본정부의 지원아래 중공업중심에서 고급기술집약적 부문으로 주안점을 바꾸고있다.

기술집약도시의 아이디어는 東京대학공대교수인 다께모찌·이시이씨와 前通産省기획책임자인 미찌나오·다까하시씨가 창안했다.

이계획의 주목적은 일본의 산업기지를 좀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는데 있다.

지난3월 발표된 通産省보고서에 의하면 인구20만이상의 母都市주위에 인구5만정도의 기술집약도시를 건설한다는것으로 돼있다.

신도시는 집적회로, 컴퓨터, 미세가공품, 순도높은화학제품, 의약품, 전자정밀기기등을 생산하는 산업플랜트가 경제중추가 된다.

이지역에서는 광섬회로TV등 최신정보전달기술을 이용하여고도기술산업발전의조사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通産省에는요즘이같은기술집약도시를건설하는데도움을바라는 요청이 47개縣중 38개縣에서 쇄도하고있다. 이중 東京, 오오사카, 나고야등 일본의 3대중심지에 인접한 18개縣으로부터의 요청은거절되었다. 이계획자체가 산업기반을 이 3개대도시중심부에서 멀리 확산시키기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요청들엔 지방정부는 대부분 1980년대가 기술화시대이며 이에 대응하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몇몇縣에서는 기술화계획에 都市群만 포함할게아니라 縣도 끼워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美30만노동자들의 反政府데모 AFL·CIO(美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가 『노동자 단합의날』로 정한 19일 약30만명의 노동자들이 워싱턴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경제정책에 항의하는 60년대 反戰데모이래 최대규모의 反정부데모를 벌였다. 맨앞줄에 매리언·배리 워싱턴시장, 레인·커클랜드 AFL·CIO회장, 故 마틴·루터·킹목사의 미망인 코레타·킹여사의 모습이보인다. 【워싱턴 19日 UPI電送=聯合】

워싱턴서 大規模시위

레이건의 經濟·사회政策 항의

【워싱턴20日AP·UPI=聯合】레이건미 대통령의 경제·사회정책에 항의하는 노조시위가 25만명 (경찰집계)의 노동자·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19일 워싱턴에서 벌어졌다. 월남전반대데모이래 최대규모의 반정부군중시위로 일컬어진 이날 시위에는 AFL·CIO (美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를 비롯한 2백여개의 노동단체회원과 민권운동가·환경보호주의자들이 다수 참석, 사회보장예산등을 삭감한 레이건행정부를 「무정하고 냉담한」정부라고 비난했다.

행사를 주관한 레인·커클랜드 AFL·CIO회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투쟁방법을 잊어 버리지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레이건행정부에 대한 미노조들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연사로 등장한 故마틴·루터·킹목사의 미망인 코레타·스코트·킹여사도 『모든 미노동자들은 지난50년간 선조들이 피흘려 이룩해놓은 사회·경제적업적을 파괴하려는 기도에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않을것』이라고 역설했다.

파업 관제사들에 동조하기위해 항공편을 이용하지않고 버스·열차편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이날정오직후 반레이건기치들을 흔들며 워싱턴기념비로부터 백악관이 보이는 국회의사당근처 집회장소까지 행진했다.

의사당앞 군중대회에서는 커클랜드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연사들이 레이건행정부의 대내정책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연설을했으며 월터·먼데일 전부통령, 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등 주요정치인들이 노조시위에 동조하는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시위가 계속될무렵 레이건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산장에 머물면서 시위에 대해서 일체 함구했다.

駐캄越軍 화학무기使用

지난18개월동안 千백명 死亡

【방콕19日AP=聯合】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은 지난18개월동안 캄보디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 캄보디아人 1천1백여명을 사망케 했다고 축출된 크메르·루지정권이 19일 주장했다.

크메르·루지보전성은 AFP방콕지부에 보낸 성명을 통해 『친소 베트남당국이 캄보디아에서 이같은 화학전수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80년4월이래 약 2천9백여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독가스에 중독돼 치료를 받았으며 그중1천1백여명이 타이와의 접경부근 배탐방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美·南阿共오늘회담

나미비아 獨立협의

【베른·요하네스버그20日聯=聯合】미국과 남아공화국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갖고 남아공지배하에 있는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독립문제를 토의한다고 스위스외무성이 20일 밝혔다.

스위스 외무성은 양국회담에 체스터·크로커 아프리카문제담당 미국무차관보와 브랜드·포리남아공외무정무차관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취리히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메아리

新安 보물선

지난달 22일까지 두달동안 실시되었던 신안해저유물인양작업에서 새로 2천5백64점의 도자기등 유물과 18개의 뱃조각이 건져져 침몰선의 수수께끼는 한겹 한겹 벗겨져 가고 있다.

당초 어부의 어망에 걸려서 우연한 기회에 침몰지점이 확인된 이 배는 그 배 속에 많은 도자기와 기타의 유물이 가득한 보물선이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중고고학에 대한 지견이 태무하여 이토록 중요한 세계적인 유물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것이며 또 유물의 인양은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만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간만의 차가 심해 해류가 빠르고 바닷물도 흐려서 거의 손으로 더듬는 상태로 조사도 하고 인양도 해야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백지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의 출발에는 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침몰선의 침몰연대가 송대말인지 원대초인지에 대해서 갈팡질팡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 배의 선적도 당초에는 중국배라고 했다가 이제는 일본배쪽으로 기울고 있는듯하다.

그런데 일각에선 당시 동양삼국의 해상교역은 현대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여 어느나라의 배라고 가리기가 조심스러운 일인데 일부 당국자들이 왜 우리 영해에 가라앉은 배를 두고 처음부터 우리배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같은 의점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 선체가완전 인양될 때까지에는 대부분 밝혀질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일련의 인양작업으로 우리가 갑자기 세계에서 원대초의 도자기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국가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는 황무지이던 수중고고학의 새터전을 닦기에 이른것은 크나큰 소득이라 할수가 있다.

다만 이 방대한 문화재를 제대로 조사평가할 전문요원이 국내에 없으니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또는 일반 학계인사들의 해외파견연구및 수련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다.

波、두번째 緊急閣議

經濟難에 긴급措置 결정

蘇의 警告메시지 관련

【바르샤바20日UPI·聯=聯合】폴란드自由勞組의 反蘇·反社會主義활동에 단호하고도 과감한 규제조치를 취하라는 蘇聯의 초강경경고성명에 자극받은 폴란드정부와 자유노조가 상호간의 긴장해소를위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있는가운데 폴란드정부는 20일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 주재하에 1주만에 두번째의 긴급각의를 열고 『현재의 사회·정치·경제적상황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폴란드관영 PAP통신이 보도했다.

PAP통신은 省의 지사및 시장등 각급 지방정부책임자들도 참석한 이날 각의에서는 『국가가 당면하고있는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자세가 토의됐다』고 말하고 이날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책임자들에게는 예외적인 비상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노조지도자들은 최후통첩의 성격을띤 소련의 대폴란드경고메시지에대한즉각적인 논평을 삼가면서 당국이 공산당지도층 발언에대한 노조측의 일부 비판내용을 수정없이 보도함으로써 자유노조에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지적, 정부에대해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폴란드각료위원회 (각료회의)는 이날 회의를 끝낸후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위기적 상황하에서는 금년겨울을 무사히 넘기기가 무척어려울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법과 질서및 국가기강이 정부와 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활동속에서 준수될수만 있다면 현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주장했다.

波共産黨 매스컴獨占비난

主教團、報道매체 사회전체奉仕를

【바르샤바20日AP=聯合】폴란드 가톨릭주교들은 20일 공산당측의 보도매체「독점」을 비난하면서 모든 사회단체들이 보도매체에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가톨릭주교들의 입장은 폴란드교회가 자유노조의 대정부보도매체 개방요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軍事목적에 더큰 意義

中共、人工위성發射배경

史上처음 正確히 軌道진입

기능正常…科學자료 地球로

美·蘇이어 世界세번째 技術터득

【北京20日AP=聯合】중공은20일 중공 사상 처음으로 단일 추진 로키트로 3개의 우주 물리실험용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발사, 모두 지구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서방과학관측통들은 이같은 방식의 위성발사는 세계사상 최초일수도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성과이며 추진로키트는 다탄두 미사일에 이용될수 있는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사 통신은 3개의 과학위성이 모두 정확히 지구궤도에 진입되었으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 과학자료를 지구로 송신해오고있다고 말했다.

이통신은 이들 위성에 적재된 과학기기들이 자연현상에 관한 실험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들 위성이나 로키트등에 관해 더이상 상세한 보도를 하지않았다.

중공은 지난70년4월24일 최초의 위성을 발사한 이래 78년1월까지 8차례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75년11월에는 처음으로 지구귀환용 실험위성을발사, 이를 회수한는데 성공한으로써 소련과 미국에 이어 복잡한 인공위성회수기술을 터득한 세계3번째 국가가됐었다.

서방관측통들은 이번에 단일추진로키트로 3개의 위성을 동시에 정확히 지구궤도에 진입시킨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논평하고 이러한 성과는 다탄두미사일에이용될수있는 군사적 의미를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측통들은 또 중공이 금년초 경제적 압박때문에 과학분야의 계획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성공을 한것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중공은 유인우주비행계획에 관해 발표한바 없으나 중공이 우주인들의 훈련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상해의 한 신문에 실린바 있다.

이밖에 中共의 우주·미사일및 핵무기계획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알려지지않고 있다.

◇KAL機 손질하는 比노동자들 필리핀공항 노동자들이 대한항공소속 보잉747점보기의 오른쪽 앞바퀴를 받치고있는 나무발침대를 손질하고 있다. 이비행기는 마닐라공항에서 이륙에 실패한후 5일째 꼼짝못하고있다. 【마닐라20日AP電送=聯合】

아마존江서 旅客船 전복

3百여명 溺死·百78명 살아나

【오비도스(브라질)20日UPI=聯合】승객5백여명을 태우고 아마존강을 운행하던 브라질여객선1척이 19일 브라질북부 오비도스항 근처에서 전복, 승객1백78명은 헤엄쳐 살아났으나 나머지 3백여명은 익사하거나 식인물고기떼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것 같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인양된시체16구에 모두 칸디루라고하는 실같이 생긴 조그만 식인물고기떼의 습격을 받은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구조되지 못한 나머지 3백여명도 식인물고기떼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3층여객선 소브랄·산토스호가 오비도스항에 들어올 무렵 배에 있던승객들이 모두 항구를 보려고 우루루 한곳으로 몰리는바람에 배가 갑자기 전복됐다고 밝혔다.

가미가제式 攻擊준비갖춰

西獨 左翼테러단체 赤軍派

【본20日AP=聯合】서독의 불법좌익테러단체인 『赤軍派』는 현재 서독내 美군사및민간『목표물들』뿐만아니라 서독군과 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일련의 가미가제(神風)식 공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서독 테러방지기구(BKA) 소식통들이 20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BKA가 최근 하이델베르크의 한 아파트를 급습, 『赤軍派』가 反美테러공격행위를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문서를압수했다고 밝히고 적군파는아직도 이러한 계획을 전혀바꾸지않고있다고 강조했다.

트뤼도首相 訪韓준비차歸國

李揆現 駐캐너더 大使

5分間 인터뷰

李揆現駐캐나다대사가오는 27일로 예정된 피에르·트뤼도 캐나다首相의 訪韓에 앞서 본국정부와 사전협의차 귀국했다.

—트뤼도수상의 訪韓의의에 대해.

『韓·캐나다관계는 정신적으로 근1世紀에 달하는 역사를 지녀왔읍니다. 우리들의 기억에 새로운 스코필드박사나 게일박사 모두가 캐나다의 선교사로, 이들이 남긴업적은 한국現代史의 중요한 劃을 긋고 있지요. 따라서 트뤼도수상의 이번 訪韓은 이러한 1백년交流를 「確認」하는의미를 지니고있다고 볼수있읍니다』

—이번 訪韓을계기로 캐나다의 原子爐對韓관매說이 심심찮게 나도는데…

『양국정부차원에서 볼때는 전혀 訛傳된 내용입니다. 양국간의 業體, 예컨대 韓電이나 캐나다側 메이커간에는 그러한 제안과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고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될문제는 아니지요. 상식적인 얘깁니다만 一國의 首腦가 오가는 자리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내용이 거론될수 있겠읍니까』

—任地에서 본 트뤼도수상의 片貌는 어떠한지요?

『한마디로 「구김살이 없고 매사에 젊은 호기심과 열의를 지닌 분입니다. 젊어서는 [illegible] 여행을 즐겼는가 하면 일본, 中共에 대해서도 상당한지식을 갖고있지요. 英語말고도 佛語, 스페인語에 능통한 秀才型수상입니다』

精神·文化1百年交流 확인

加에 經濟人등 進出바람직

흔히 駐在國에 대한 現地대사의 「歸國보고」는자칫 과잉PR로 일관되기십상이다. 그러나 李대사의 「보고」는 실제로 목격한 事例와 實證을바탕으로한, 한마디로 정확한 보고라는 評을듣고있다.

『그동안 두나라가 서로를 너무도 모른채 지내온것같아요. 캐나다하면 미국북쪽에 붙은 혹정도로 여겨온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나라가 6·25參戰國이자 5백16명의 戰歿장병을 기록한 우리의 盟邦이라는 사실을유념하는 국민들은 많지않지요』

李대사는 특히 캐나다가 한국戰參戰國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캐나다 국내 어디를 가도「한국戰參戰在鄕軍人會」란것을 자주 볼 수 있읍니다. 지역별로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가 열렸다하면 그지역은 3~4일동안 완전 축제분위기에 빠지게마련이지요. 거리엔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남녀모두가 배지나 휘장을 달고 晩餐과 舞蹈會에 참석합니다. 참석객중엔 휠체어를탄 인사도 눈에 띄는데 그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번 「국군의 날」행사를위해 1백20여명의 參戰용사들이 서울에 들를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면적은 소련에 이어 세계 제2位. 南韓땅의 1백倍에 이르며 資源의 가지수나 매장량은 대사의 표현대로 「無盡藏」이다.

『實業·經濟人들의 대폭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하나만 예를들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地下로 몇백m나 파들어가야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여기저기 「긁어모으면」그게 바로 석탄이지요. 林野·농산물은 말할나위도없고…』

現地赴任후 지난1월 공관장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귀국이라고 말하는 李대사는 트뤼도수상의 訪韓이 끝나는대로 서둘러歸任, 오는10월3일 캐나다 지역僑民별로 벌일 民俗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金勝雄기자】

韓國등 4百여代表

國際펜大會에 참석

【리용(프랑스)20日AFP=聯合】제45차 국제펜대회가 세계각국의 시인·소설가등 4백여명의 문필가들이 참석한가운데 21일 리용에서 개막됐다.

4일간예정으로 열린 이번 45차회의에는 중공·대만대표 50명을비롯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대표들이 참석, 「문학은 위기로 가득찬세계를위한 희망인가」라는 주제를놓고 논문발표와 토론을벌이게된다.

新自由俱·社民聯

1個원내교섭단체 日議會에 등록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집권自民黨에서 이탈한 新自由俱樂部와 社會黨에서 이탈한 社會民主聯合이 21일 중의원에서 한개의 원내교섭단체로 등록, 발족했다.

통합된 교섭단체명칭은 2개의 정치단체명칭을 합친 「新自由俱樂部社會民主聯合」으로 신자유구락부의 11명과 사민연의 3명을합한 1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日 이시이別世

衆議院 의장 지내

【東京20日AP=聯合】일본정계의 중진으로 중의원의장을지냈던 이시이·미쓰지로(石井光次郎)씨가 20일 도오꾜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그의 주치의들이 밝혔다. 향년 92세.

海外토픽

發癌요소 除去가능

★코피에 亞黃酸나트륨 첨가

아황산(亞黃酸)나트륨을 극소량첨가하면 코피의 발암성이 완전제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코피애호가들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일본의 국립암센터가 21일 「제3회국제환경變異原」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에따르면 코피에다 아황산나트륨을 극소량첨가할경우 발암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변이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것이다. 【東京=聯合】

참기힘든건 하품

★찰즈皇太子 會見서실토

영국의 찰즈황태자는 최근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공식석상에서 가장 참기힘든것은 하품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잠들며 심지어는 선채로 잠을 자는때도 있다고 말하면서 공식행사로 인해 사람을 만날때 상대편이 자신을 의식하여 긴장하는 것이 『몸서리날정도로 싫다』고 설명했다. 【뉴욕AP=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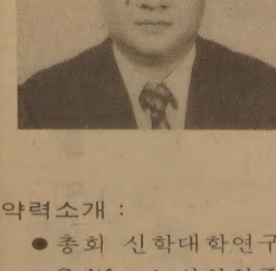
오늘의 역사 <22일>

- ▲링컨美 대통령, 노예해방을 선언(1862)
- ▲蘇, 처음으로 原爆실험 (1949)
- ▲美 반공법 선포 (1950)
- ▲忠州비료공장 起工 (1955)
- ▲美, 蘇로수송 쿠바설탕 몰수 (1962)
- ▲金斗漢의원 汚物撒布사건 발생(1966)
- ▲民防衛隊 발대식 (1975)

심 령 부 흥 회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읍니까? **와 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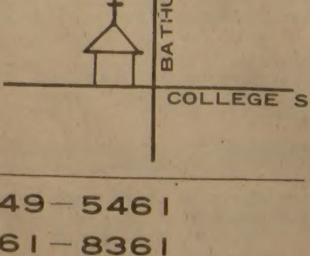
강 사:최 헌 우 목사



최헌우 목사님은 L.A.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척한지 5년만에 급성장한 교회로 부흥시킨 능력의 종, 신유의 종으로 현재 400명 교인이 모이는 (72만달러짜리교회 구입)교회를 이끄는 성공적인 목회자이며 부흥사이십니다. 많이 오셔서 최목사님의 능력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영육간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력소개:
- 총회 신학대학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10월1일(목)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일(금) 오후7시30분(〃)
3일(토) 〃 (〃)
4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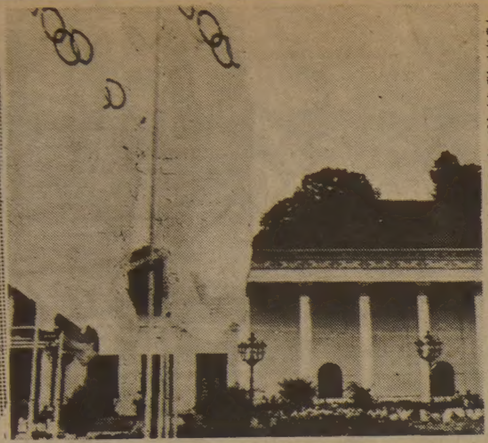
전화연락: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중앙장로교회

바덴바덴 五輪콩그레스 開幕
88年 開催地 결정
29일 IOC總會서


◇제11회 올림픽·콩그레스가 열릴 西獨바덴바덴의 쿠츠하우스앞에20일 五輪旗가 휘날리고있다。【바덴바덴(西獨) 20日AP=聯】

【바덴바덴(西獨)=聯】제11차올림픽 콩그레스가 세계 1백47개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대표 7백여명이 참석하는가운데 23일 이곳서 개막, 앞으로 있을 올림픽대회의 운영문제와 국제적협동 문제등을 논의한다。

올림픽콩그레스는 28일 폐막되며 29일부터는 88년하계올림픽개최지를 결정하는 제84차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리게된다。

한편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위원장은 20일 인터뷰에서『세계가 변하고 있는만큼 스포츠서도 변화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혀 IOC가 직면하고있는 제반문제에 신축성을 보일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IOC 집행위원회는 美國이 참가하는 모든 국제경기를 거부하자는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원국들의 요구를 논의할예정이다。

OAU회원국들은 최근 南阿의 럭비팀이 美國순회경기를 갖고있는데 반발, 美國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국제경기를 보이코트 하기로 결의하고 IOC집행위원회에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해줄것을 요구한바있다。

五輪개최지 결정에 日도 關心크게높아

【東京21日=聯】88년올림픽개최를 둘러싸고 서울과 나고야(名古屋)의 대결이 팽팽해지고 있는가운데 日本에서도 西獨 바덴바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결과에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日本신문들은 20일 바덴바덴발기사를 체육면톱으로 크게 게재하면서 현지의 보도진들사이에『극동의 대결』이 세계관심사로등장했다고전했다。

그러나 日本신문들은 유고를 중심으로한 비동맹여러나라가 反서울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나고야가 차츰 유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오도(共同)통신은 北傀가 비동맹제국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서울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나고야가 뜻밖의 원군을 얻었다고 보도했으며 아사히(朝日)신문도 올림픽개최지 결정의 열

최초五輪 여성委員 핀란드 헤그만女史 總會서 투표로選出

【바덴바덴(西獨)21日AP=聯】핀란드의 피르조·헤그만(30)여사와 베네수엘라의 플로르·이사바(60)여사등 2명이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여성들에게 폐쇄적이었던 IOC는 이번 총회에서 여성IOC위원의 선출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韓國 테니스 기염
星港오픈大會 女단식·男女복식우승

싱가포르·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들이 여자단·복식과 남자복식에우승했다고 21일 협회로 알려왔다。대우중공업의 林志鎬·朴鐘永조는 20일 끝난 남자복식결승서 필리핀의 마셜·케브리알조를 3-6、7-6、6-3으로 누르고 우승했으며 朝興銀行의 申順浩·韓恩淑조는 필리핀의 산체스·다얀조에 6-3、6-0으로 승리。단식결승서는 申順浩가 동료 韓恩淑에게 6-3、6-7、6-2로 이겼다。

慶北高、光州一제압 嶺湖南 고교野球

【光州=聯】제7회 嶺湖南친선 고교야구대회가 20일光州無等경기장서 열려 嶺南의 慶北高·大邱商·浦鐵工이 3모두이겨 3전승을 거두고 연패를차지했다。

이날 慶北高는 라이벌 光州一高를 5-2로꺾었고 大邱商은 4회초 李龍洙의 솔로홈런등으로 眞興高에 3-2、浦鐵工은 光州商에 6-5로 이겼다。

서울大·高大 무승부
韓·美 미식 蹴球

21일 체육공원내 미식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회韓美미식축구 리그전 서울大-高麗大전은 치열한 공방끝에 8-8무승부로 끝났다。

서울大는 첫쿼터10분께 쿼터백(QB)宋友根이 오른쪽측면돌파로 25야드 독주끝에 터치다운 6점을얻고 추가공격권도 성공시켜 2점을 추가했다。

高麗大는 제3쿼터 종료1분을 남기고 라이트하프(RH)梁成東이 과감한 중앙돌파를성공시켜 추가공격권도 성공, 8-8동점을이뤘다。

◇전 적

서울대 8 (0 0 8 0 / 0 8 0 0) 8 고려대
(1무) (1무)

金鎭淑 대회新2 에이지그룹水泳

【仁川=聯】제6회 에이지그룹전국수영대회가 20일 仁川실내수영장서 열려 江南女中의 金鎭淑이 여중자유형1백m와 접영 1백m서 두개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는등 대회신기록 16개가 수립됐다。

최고記錄 2、大會新 40개 KBS杯 육상폐막

【大田=鄭東吉기자】제9회 KBS배쟁탈 전국육상대회가 중등부최고기록 2개와대회신40개·대회타이기록 10개를 남기고 20일 大田공설운동장서 이틀간의 경기를모두 끝냈다。

이틀째경기서 大邱慶明女中의 尹美演은 여중3종경기에서 2천9백53점을 기록, 76년2월 조경례가 세운 2천8백15점을 1백38점이나 경신, 5년만에 여중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또 남중부 중거리 유망주 柳泰慶(晋州中)은 남중8백m에서 1분57초5(종전1분59초4)로 대회신기록을 수립, 전날 4백m와 1천5백m에 이어 3관왕이 됐으며 여중부의 安信暎(大邱慶明)도 1백m, 2백m, 4백m계주에서 우승, 3관왕을 차지했다。

崔旭珍장사 2冠王 大統領旗 장사씨름

【釜山=聯】단신의 崔旭珍장사(慶尙大)가 20일 九德체육관에서 폐막된 제1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 장사부리그에서 6승1패의 기록으로 우승, 올들어 2관왕을 차지했다。

◇최종일전적(20일)

▲장사부결승리그=①崔旭珍(慶尙大) 6승1패②洪顯旭(現代) 5승2패③李俊熙(慶北鐵鋼) 5승2패(이상승자승)④張海植(現代) 4승3패⑤金光植(忠南大) 3승4패⑥李鳳杰(忠南大) 2승5패⑦康時候(釜山공동어시장) 2승5패⑧李萬九(現代) 1승6패

남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⑤2

華府의 深夜論爭
李박사、「過政수립」등 建議위해 渡美
任永信과 意見대립 夫婦싸움 오해도

1947년에 접어든 겨울 어느 날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호텔앞 공원에서 한국인남녀3명이 밤의정적을 깨며 요란스럽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70代노인과 중년의여인이 한국말로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고 또 한명의 남자는 중재를 하는지 또다른 의견인지 점잖게 간섭하고 있었다。

한밤중의 시비에 놀란 경찰관이 달려오더니『여보시요. 이혼을 하려거든 점잖게 하지 왜 남들 잠못자게 소란을 피우느냐』며 꾸짖었다。한국어를 알 리 없는 경찰관은 부부싸움으로 여겼던 것이다。

말다툼의 주인공은 李承晩박사와 任永信(前中央大총장)이고 다른 남자는 林炳稷(前외무장관)이었다。

그들은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과 미국에서의 외교방법론을 놓고 말씨름을 하고있었다。李박사의 의견에 대해 날카롭게 기질이 억센 女丈夫인 任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대들었던 것이다。

나도 뒤에들은 얘기지만, 이 深夜의 공원토론은 당시 절박했던 독립외교의 한 에피소드이다。

李박사는 立法議院 開院을 한주일앞둔 46년 12월4일「독립외교」를 전개하기위해 渡美했다。억지로 左右합작을 내세워 건국을 이끌려는 하지를제치고 美國정부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民主議院은 李박사에게 民主議院의장및 대한민국 대표자격으로 외교비용을 지출했고 民統總本部를중심으로 한국 민족대표 외교후원회가 조직돼 여비를 거뒀다。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환송대회에선 金九선생이 1만의 군중에게 대대적인 축사를했다。

하지는「無用」이라며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당시 미국에가려면美군용기便과 船便밖에 없었는데 李박사가 군용기便을 부탁하자 하지는 딱잘라 거절했다。결국 仁川에서 貨物船으로 갈수밖에 없었다。

李박사는 40여년전인 1905년露日전쟁 처리를위한 포츠머드 講和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에대한 지배권 확보획책을 저지하기위해 閔泳煥선생등의 지원아래 濟物浦에서移民船을타고 태평양을 건넌적이 있었다。

李박사는 우리들에게『40여년전에 日帝로부터 나라를구하려고 떠났는데 이젠 해방이되고도 또 救國을위해渡美를하게되니 우리나라나 나자신이나 왜이리 운명이 기구한지 모르겠다。일이 실패하면 결코 돌아오지않겠다』며 눈물을 글썽 거렸다。

이때마침 美極東軍사령관인 맥아더장군이 자신의 專用機를보내 李박사는 東京을거쳐 미국으로갈수있었다。

李박사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任永信, 歐美위원부의 林炳稷대사와더불어 유엔, 美국무성과 의회, 언론, 학계, 실업계등을 상대로 연일 한국의입장에대한 선전을하고 외교공작을 벌였다。李박사는「總選 실시전의 過渡정부수립」등, 6개항의 건의서를 미국무성에내기도했다。앞서美軍政이 左右合作세력에 의한 立法기관설치를 추진하고있던 46년8월, 李박사는 하지몰래 任永信씨를 民主議院의 全權사절자격으로 미국에 密派했다。

한국의 自主독립국가 건설을 유엔과 미국에 직접 호소케하려는 의도였다。그때 任씨는 학교(中央女專)관계일을 보러가는척 僞裝하고 떠났다。

李박사가 워싱턴에 체재하고있는동안 하지가 政務연락차귀국했다。하지는 국무성에서 李박사와도 만나 인사를 나눴지만 몹시 씁쓸한표정이었다고한다。

하지가 다시 서울로 간뒤 李박사는 하지를 갈아치우려는 로비활동을 은밀히했고 하지는 李박사의 귀국을막으려했다。

군용기탑승이 취소되는등 李박사의 귀국은 자꾸만 늦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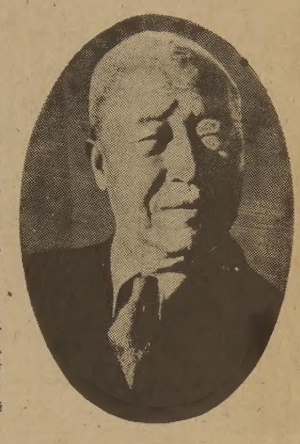
난 李박사의 渡美중 국내정세의 변화를 그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美국에서의 진전상황을 연락받아 民主議院등 민족진영에 은밀히 알렸다。그런는동 국내에서 非常國民會議의 통합운동이 미묘하고도 새로운상황이 전개돼 난 李박사의 귀국을 독촉했다。

李박사에게 오히려 감격적인 행운이 찾아왔다。3월12일 트루먼대통령이 上下양원합동회의에서 공산침략에 직면한 터키와 그리스에 대해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을 밝히면서 미국은 전체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나 제도를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트루먼독트린』의 선언이었다。

때를 같이해 마셜국무장관이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를 규탄하고 南韓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바로 李박사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47년 4월, 5개월 가까운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李박사는 개선장군의 환영을 받았다。귀국길에는 東京에서 그를 陰陽으로 도와준 맥아더장군과 만나 뜻있는 회담을 갖기도 했다。

서울운동장에선 떠날때처럼 대대적인 군중환영대회가 열렸다。하지의 對李박사 孤立作戰은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해 가을, 마침내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되고 유엔에서 한국 총선거안이 가결될 줄은 하지로서는 꿈도 꾸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1947년 南韓만의 單獨정부수립을위해 워싱턴과 뉴욕에서 美정부와 유엔을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일때의 李承晩박사모습。

延·高 올두번째激突
大學야구 延大 추첨으로 決勝진출

延世大가 20일끝난 추계대학야구 리그전예선에서 추첨으로 기사회생, 결승 토너먼트에올라 22일12시 준준결승에서 高麗大와 금년시즌 2번째 대결을 갖게되었다。

2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10일째 예선B조경기서 慶熙大는 檀國大에 6-5로이기고 嶺南大는 中央大에 3-1로 패배、延世·慶熙·嶺南이 공동3위를 마크했으나 추첨에서 延世大가 결승토너먼트진출의 행운을 잡았다。

◇제10일 전적

◆B조

중앙대	002	100	000	3
영남대	001	000	000	1
단국대	000	310	010	5
경희대	000	402	00×	6

▲홈런=鄭允敎(6회·2점·경희)

◆동순위=①동국 5승1패 ②인하 3승2무1패 ③영남 3승3패 ③연세 2승2무2패 ③경희 2승2무2패 ⑥중앙 2승4패 ⑦단국 1승5패

◆A조

성균관대	110	000	032	7
인천체전	130	010	12×	8
전국대	011	000	100	3
원광대	000	001	000	1

◆동순위=①한양 5승1무 ②고려 5승1패 ③동아 4승2패 ④건국 3승1무2패 ⑤원광 2승4패 ⑥인천체 1승5패 ⑦성균관 6패

全州·弘大附高선승
秋季 남녀中高롱구 첫날

제11회 추계남녀중·고농구연맹전이 여고11, 남고14, 여중17, 남중 12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21일 大京商高와 奬忠체육관서 각각 개막되었다。

첫날 남고 B조서 全州高는 淸州新興高에 62-60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서전을 장식했다。남고 D조서 弘大附高는 소년의집을 71-58로 격파, 1승을 올렸다。

대회는 각부 상위 2개팀이 결승토너먼트 조별리그를 거쳐 자웅을 가린다。

◇제1일 기록

▲남고B조 전주고 62 (38-28 24-32) 60 신흥고
▲동D조 홍대부고 71 (37-28 34-30) 58 소년의집
▲남중A조 용산중 50-24 광신중
▲동B조 명지중 45-42 연서중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스포츠話題

공부하는 排球팀
西江大유일의 運動部7명

西江大 후문옆한옥은 매일 밤 1시에 잠이든다。1백50평의 이 한옥에는 西江大 유일의 운동부인 배구팀 선수 7명이 합숙하고있다。

이들은 매일 하오 7시부터 배구볼을 한쪽에 밀어두고 공부에 열을 올린다。하루 1시간동안 경제과 김경리조교등 선배들로부터 영어·한문과 같은 기본과목을 단체학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날 강의과목을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걸로 채운다。운동하라 강의시간도 빠짐없이 출석케했다。물론 하오 3시 반부터 2시간동안은 교내 체육관에서 李慶寬코치의 지도로 배구훈련도 빠짐없이 받았다。

西江大배구팀은 仁昌高 배구선수 5명과 大新高선수2명등 7명으로 지난3월 창단됐다。희극작가인 李根三교수(신문방송학과)가 감독을 맡은 배구팀은 창단하면서부터『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西江大배구선수들이 선배의지도에따라 공부하고있다。

이같은 공부와 운동의양면생활이 계속되자 선수들은『못견디겠다』며 반발, 지난 4월에는 다른팀으로 보내달라며 보따리를 싸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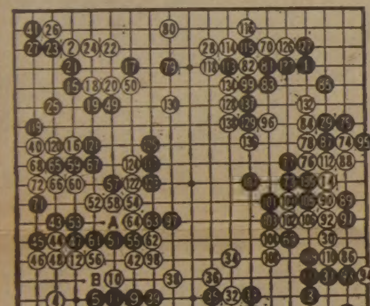
그러나 운동도좋지만 어느정도의 지식은 가져야한다는 학교측의 설득을 받고 모두 마음을 굳게 고쳐먹었다。

창단후 6개월이지난 이즈음에는 선수들이 오히려 공부를 한다고해서 저하되는 운동실력에 대한 상대적인 가하면 그렇지도 않다。

지난번 馬山종별대회때는 대학부최강 仁荷大에스트레이트로 패하기는 했지만, 세트당 7·5·9점씩을 따냈고 짜임새가좋은지방팀 馬山大를 풀세트접전끝에 격파, 배구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이제는 대학정상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초년병西江大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못한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黃4局 總譜 138完 白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徐奉洙
黑(6段)姜哲民

徐7段、緒戰에 樂勝

徐7단은 9월18일에 있었던 棋王戰도전 제4국을 분패함으로써 曺薰鉉8단으로 하여금 名人戰에이어 계속 2회의 방어를 성공케했다。스코어는 이번에도 3대1。그러나 바둑내용에서는 결코 일방적으로 밀려났던것이 아니라, 앞의名人戰때처럼 자기 사력을 다하여 대등이 충실한것이었다고 한다。

작년말께부터 무관의 徐7단이 관왕, 曺8단을 연속3회나 무찌른일을 생각하면「승부사」에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 好·不調와 이른바「승운」의 실존을 부인할수없지만 아무래도 曺8단의 권토중래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싶는것이 일부 팬들의 평이다。

그렇지만 4관왕 曺8단과 3관왕 徐7단이 앞으로 당분간 어쩌면 꽤 오랜기간, 한두개 타이틀을보유수효에관계없이 한국기계의 兩大山脈으로 군림하며 더욱격렬하게 싸워나갈것임은 분명해보인다。팬들이 바라는군웅할거의시대가 오기까지는 아직도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바둑의 總評이다。

좌변접전에서 黑55를「A」에 쌍립으로 들여다보고 白58때 黑「B」로 무어 상하兩軍을 연결하지않은단한수가 패배에 직결된것같은 내용이었다。

이로인해 좌변 黑대마가 함몰되어서는 사실상 종국된셈。그뒤 黑은 73이하로 우변白대마를 공격하여 쌍방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특히 黑87、95등은 白의간담을 서늘케 한 강공이었는데 결국은 白의교묘한 수습으로 실패。결하여 黑117을 118에한지없는것이 명국재촉한 최후의 패착이었다。소비시간 白-2·40 黑-3·10。【一九】

돌개바람불다 ⑧
趙善 作 禹慶熙 畵 〈207〉

전날 나는 유장훈감독에게서 부산여행의 제의를 받은 뒤 곧장 집에들러 은애에게 세훈의 전화번호를 물어두었다。「부산 가세요?」하고 은애가 물었을때 나는 어물어물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기회가 닿으면 세훈도 한번 찾아보리라고 마음먹기는 했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일이었고, 일행에게 공개되거나할 성질의것이 아니었다。그런데 어쩌다보니 그가 세호의 부산체류를 알고 있었고, 세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윤나미의 호기심까지 유발해서 나는 팬스런 화를 자초한 느낌이었다。설마 그가 세호의 전화번호까지 알고있는것은 아니겠지, 노영지에게서 들었다면 아는것은 부산에 있다는 정도일 뿐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나는 애써 불안을 달랬다。백속에든 세호의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만 그의 손에 넘어가지않게 한다면 별일은 없을거야, 하고 나는 시트한쪽에 놓은 백을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여고 시절 수학 여행으로 경주에 갔다가 부산을 경유한 것이 내가 부산에 여행한 경험의 전부였다。때문에 나는 부산의 지리에 관한 한 백지나 다름이 없었다。

택시가 어딘가에서 멎었는데, 윤나미가 내리면서「여기가 자갈치시장예요」라고 말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알 수 없는 냄새가 생선 냄새로구나, 하고 깨달았을 정도였다。일행은 시장 안의 인파와 소음과 비린내 나는 축축한 공기를 뚫고 한참동안 걸은 다음에야 어떤 한 가게에 닿았고, 그곳에서 모듬회와 매운탕 따위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유장훈 감독은 전에도 그 가게에 들른 일이 있었던지 주인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아마 부산에서 촬영이 있었을때 들렀던 모양으로, 그가 이른바 트로이카로 불리던 세 여배우중 한명의 이름을 대자 주인이 알아보았고, 고등실등 서비스 안주도 내놓았다。

점심 뒤 일행은 다시 택시로 쓸쓸한 겨울의 용두산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태종대로 나갔다。검푸른 겨울 바다가 눈앞에서 크게 파도치고 있었다。나는 일행이 태종대에서 여장(旅裝)을 푸는게 아닌가 겁이 났다。벼랑아래의 위태로운 바다는 내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설마 그가 나를 그곳에 떠밀지야 않겠지만, 내가 스스로 그곳에 투신하고 싶어질 만큼 어쩌다가 궁지에 몰릴는지도 모를 일이었던것이다。

히치코크의〈사이코〉에나 오는 모텔처럼 음산하게 생긴 호텔 앞에서 그와 유감독 권여사 등이『여기 어때?』『너무 쓸쓸하잖아?』『그럴듯 한데?』『식사형편은어떤지 모르겠는』하며 의견교환을 하는동안 나는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뒤에서 있었는데, 유감독이 호텔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해운대로 갑시다』라고 말해서야 나는 안심했다。전에도 해운대와바다는 내가아는 한 그렇게 험상궂지가 않았던 것이다。

일행은 다시 택시를 몰아 해운대로갔다。해운대에서도 일행은 몇군데의 호텔을 들아다녔다。비(非)철이어서호텔들은 한산했고, 일행은 마음대로 골라 눈앞에 순탄한 모래사장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임해호텔의 2층에 나란히 방 두개를 빌수 있었다。

방은 두개 모두 널찍한 실이었고, 바다쪽으로 창과 베란다가 배치된 로맨틱한 구조였다。일몰(日沒)의 역광(逆光)을 받아주하는 먼 바다는 명암이 뚜렷해서 특수처리한 사진작품처럼 빛나보였고, 그곳으로부터 얕은 파도가 횡대(橫隊)의 병정들처럼 달려와 모래밭 깊숙이 하얗게 엎드리곤 했다。

신앙대부흥회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의 정신생활도 이 계절과 함께 더욱 무르익어야겠읍니다.

금번 우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경말씀을 중심으로한 대 부흥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조병서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에 넘치는 목사이십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유성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계의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1980년대를 안전히 넘길지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엄청납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마련한 이 부흥회 자리에 오셔서 불안에 가득찬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확신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 박 ○ 종
수석장로 : 노 봉 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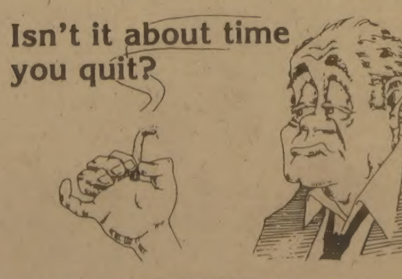
강사 : 조병서 목사님

기 간 : 1981년10월16일～25일 (매일밤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Bathurst St.의 동편)
전 화 : 630-4284
강 사 : 조병서 목사(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의 목사님)
현 재 : L. A. 중앙교회 담임
※매일 밤 천연색 건강 영화가 상영됩니다.

총연제 : 사 랑 의 하나님

10월16일(금) 역사속의 하나님
10월17일(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것이 옳은가
10월18일(일) 노아 홍수의 멸망과 오늘
10월19일(월) 이스라엘과 출애굽 그리고 우리
10월20일(화) 이스라엘과 아랍의 투쟁
10월21일(수)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10월23일(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우물
10월24일(토) 내가 원하는 사랑
10월25일(일) 행복한 가정

5일 금연학교



SMOKERS!
Enjoy Life More!
Enjoy Life Longer!

기 간 : 1981년10월10일～14일 매일밤 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토론토한인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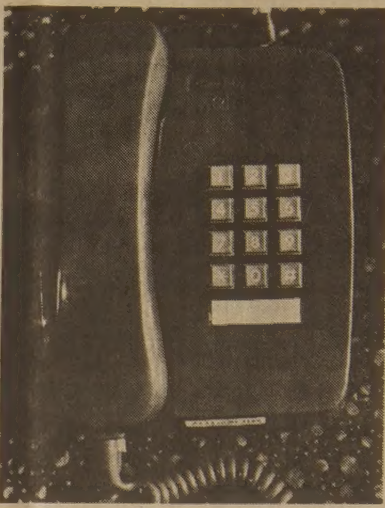
버튼 두번 누르면 "여보세요"

「電算化전화」 11월 서울서 첫선

外出장소까지 척척 연결

우선6種만 한가지料金 2천2백50원

외국영화에서 보듯이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상대방을 호출할수있는 최신식 전산화 전화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화국의 전자교환대에있는 컴퓨터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기억시켜두었다가 쓰는 이 최신식전화서비스제도는 외출했을때 걸려오는 전화를 외출장소로 돌려받을수도있는 최신 전자과학의 利器로 구미선진국과 日本등지에서도 일반화 되기시작한것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전화는 가입자에게 편의를 주는외에 호출시간을 대폭줄여 통화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큰기여를 하게되는데 이용가도비교적 싼 특징까지 안고있다.



◇전자교환기의 특수 서비스를 받을수있는 버튼식 전화기. 전화번호두자리만 누르면 상대방이 호출된다.

◇특수서비스 6가지◇

① 10자리 番號를 2자리로
② 外出한 場所까지 단숨에
③ "不在中입니다" 자동案內
④ 通話중 상대방 잠시대기
⑤ "빨리일어나요" 起床통지
⑥ 상대通話끊고 直通연결

체신부는 21일 지난해4월 이래 전자교환기의보급이 점차 늘어남에따라 전자교환기 가입자들에게 특수서비스 할수있는 8가지기능중 6종류를 오는11월부터 실시하기로했다.

체신부는 이같은 전자서비스를 우선 전자교환기가 현재설치돼있는 서울지역에 한해 시험실시키로했는데 전자교환기가 전국주요도시에 설치되는대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전자교환기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할수있는 8가지기능은▲최고 10자리까지의 전화번호를 2자리로줄이는 단축(短縮) 다이얼▲출타시행선지 전화에연결하는 착신전환(着信轉換)▲부재중임을 자동녹음안내하는 부재중안내(不在中案內)▲통화중인 상대방을 잠시 대기시켜놓고 걸려오는전화를 먼저 받을수있는 통화중대기(通話中待期)▲희망하는 시간에 벨을 울리게하는 기상통지(起床通知)▲지정된 전화는 송수화기만 들면 상대방이 통화중에도 직접연결되는 직통전화(直通電話)▲발신번호추적(發信番號追跡)▲통화폭주때 다른전화보다우선해 접속시키는 우선통화(優先通話)등이다.

체신부는 이중 ▲발신번호추적과▲우선통화등 2종을 제외한 나머지 6종류만 우선 서비스하기로 한것.

전자교환기의 특수서비스 가운데 가장편리한것은 자주 전화를 하게되는 친지나 고객, 회사직원들의 전화번호 20개를 각각 두자리 숫자로 단축, 교환기에 기억시켜 놓았다가 단몇초안에 빠르게통화할수있도록 하는것인데 이는 다이얼전화를 이용할때보다 무려 3분의1이나 시간이 단축된다.

이같은 특수서비스를 받을수있는 전화는 전자교환기가 설치돼있는 전화국의 가입자이어야하며 교환기 수용능력의29%에 한한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오는11월부터 이같은 특수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전화를 永東堂山、孔陵、廣場、惠天등 5개전화국에 수용된 전화 (각 1만대)중 7%인 3천5백대와 지난15일 개통한 九老전화국의 2만대, 10월에개통될 乙支전화국의 1만대 또 11월에 개통할 中央전화국의 3만대, 永東전화국의 2만대중 26%인 2만6천대등 모두 2만9천5백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내년3월까지는 元曉、惠化、貞陵、聖水전화국의 각3만대와 千戶전화국의 2만대등 14만대가 전자교환지방식으로 새로 개통됨에따라 3만6천4백대가 추가된다.

체신부는 이같은 특수서비스의 요금은 종류당 월2천2백50원으로 책정했는데 서비스를 받기위한 가입을 권장하고 가입자가 전화기를푸시버튼전화기 (MFC)로바꿀수있는 여유를 주기위해1년동안은 무료로 할 방침이다.

특수서비스를 원하는 가자는 해당전화국에 희망하는 서비스종류를 신청하고 전화기에 서비스받을 종류의 전화번호만 기억시켜놓으면 되는데 희망가입자가 많아 경합이 생길때는 청약우선순위에따라 결정키로했다.

한편 서비스를 받기위한가입자들은 전화기를 선택할때 주의해야하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푸시버튼전화기는 MFC식과 DP식 두가지로 모두 디자인이 비슷하다. DP식은 보통전화기의 다이얼장치만 버튼으로 바꾼것으로 전자교환기에 연결 사용해도 특수서비스를 받을수 없다.

이에비해 MFC푸시버튼 전화기는 특수서비스를 받지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가입자를 부를때 DP식이 평균6.6초, 다이얼식의 11.9초에 비해 5.6초밖에 걸리지않고 단축다이얼서비스를 받으면 시외는물론 국제전화까지도 두자리숫자만 누르면되는것으로 1~2초내에 전화를 걸수있다.

【安泰煥기자】

福夫人등 일제內査

治安本部 상습投機꾼 70명 名單작성

치안본부는 21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주요도시의 복부인, 상습부동산투기꾼, 복덕방등의 실태를 전면내사하라고 시·도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부산華明洞주공임대 아파트, 果川주공 아파트분양을 둘러싸고 복부인과 복덕방들이 부정추첨·전매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다시 심하게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것인데 서울시경은 1차로 상습투기군 7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경찰은 부동산투기붐이 다시 과열되면▲무허가건물 철거민등 타인명의로 아파트분양추첨에 당첨된후 프리미엄을붙여 전매할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등으로 다루고 ▲다른방법으로 상습투기를하면 세무서통보등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自轉車고치는새 5백만원들치기

【金泉=聯】21일 하오1시께 김천시평화1동 조광자전거점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조래연씨 (53·김천시 모암동 109)가 자전거뒤에 실은 현금5백7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조씨에따르면 빚을 갚기위해 이날낮12시30분께 김천시평화1동 조흥은행 김천지점에서 5백70만원을 인출한뒤 자전거뒤에 싣고보니 자전거가 펑크가나있어 인근자전거점으로 끌고가 수리를하고있던중 40대의 신사복차림의남자가 가방을채 달아났다는것.

대낮拳銃강도

春川、病院침입 一家묶고 金品털어

【春川=聯】20일하오3시께 강원春川市中央로2가姜치과의원 (원장 姜鉉英·41) 4층 내실에 20대복면 권총강도가 들어 방안에있던 姜씨의 부인 金錦珠씨 (36) 등 일가친척 4명을 위협,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갔다.

金씨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온 이모 權銀愛씨 (52·서울江南區新盤浦洞 우성아파트103동1003호) 등 4명이 새마을축구중계를 시청하고 있던중 범인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 45구경으로 보이는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 자신과 이모 아들勝秀군 (16·소양중3년) 姜씨의 이종조카 宣美淑양 (22·春川시中央로2가90) 의 손을 끈으로묶고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린뒤 權씨가 끼고있던 5돈쭝짜리 금팔찌, 오팔반지와 宣양의 금목걸이 금반지 각1개를 뺏었다.

범인은 이어 金씨에게 현금을 내라고 위협, 같은층의 거실 화장대서랍에서 70만원을 꺼내주자 이를 받고 사라졌다는것.

女大生피살 暗葬

서울三成洞 머리엔 타박傷… 釜山학생

人跡드문 人造石야적장 더미속에 묻혀

대학미전 시상식에 참석하기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여대생이 피살된 변시체로 인조석야적장 더미속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상오8시30분께 서울江南區 三成洞 168의64 5 건축자재상 한주상사 (대표 崔章煥·45) 인조석야적장더미속에 25~26세 가량의 여인이 반듯이누운채 묻혀있는것을 종업원 吳大煥씨(24)가 인조석을 팔기위해 삽으로퍼내다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吳씨에 의하면 이날 높이 1·5m의 인조석더미를 1톤가량 퍼냈을때 여자의 맨발부분부터 나타났다는 것.

숨진여자는 퍼머머리에 검정색 긴소매 티셔츠, 청바지차림이었는데 티셔츠에는「TUT·THE BOY KING」란 영문자와 함께 고대이집트의 투탄카멘왕의 얼굴이 인쇄돼 있었고 14K 금목걸이, 금귀고리등 귀금속을 지니고 있었고 증명서등 다른 소지품은발견되지않았다.

여자의 오른쪽빰과 왼쪽옆머리등에는 심한 타박상흔적이 남아있었고 교살된듯 목왼쪽에 손자국이 나있었으나 추행당한것 같지는 않았다.

시체 발견장소는 지하철2호선 제2-1공구 옆으로삼정장여관으로 통하는 길목인데 부근에는 인가가 없는곳이다.

종업원吳씨는 지난13일 추석을 지내기위해 고향인 公州에 내려갔다가 19일상오출근해보니 시체가발견된 인조석더미가 불룩하게 솟아나있어『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신원조사에나선 경찰은 피살된 여자가 대학미전시상식에 참석키위해 지난17일낮상경한 朴尙恩양 (22·부산산업대공예과3년) 임을 밝혀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朴양은 서울에와 서울江東區잠실 장미아파트28동309호에있는 오빠 바인태씨집에 묵었는데 18일하오9시께 경상도 사투리를쓰는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슬리퍼를신은채 나간뒤 소식이없었다는 것이다.

朴양은 79년 서울惠花여고를졸업, 79년 부산에 내려가 부산산업대에 진학했는데 서울에서열린 대학미전에 공예작품을 출품, 동상을 타게됐었다. 경찰은 경상도사투리를쓴여자를 수배했다.

朴양은 미전수상식때 부상으로받은 현금8만원등 18만원을갖고 나갔는데 현금은모두없어졌다.

경미한 豫備軍法위반 初犯은 即審처리

내달부터

법무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가운데▲훈련기피행위▲훈련소집통지서 전달불이행행위▲훈련연기사유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거짓 사실로 훈련을 연기하는 행위등은 초범일경우 형사입건치말고 즉결심판에 넘기라고 21일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경미한 향군법위반사범을 즉결심판으로 신속히 처리해줌으로써 종전의 사법처리절차를 밟다가 생업의 지장을 받는 불편을 없애주고 검·경등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사건누적요인을 없애기 위한것이다.

국제學力評價制도입

우리學生성적 先進國과 교환비교

우리나라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선진제국의 학생들과정기적으로 비교 평가하는「국제학력평가제」가 도입된다.

국제학력평가제는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일반화 돼있는 제도로, 각국이 주요 과목별로 국제적인 학력평가기구를 구성,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동일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력평가사업을 실시 하고 그 평가결과를 서로교환, 이용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향상과 국제화를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21일우리학생들의 실력은 그동안 국제적인 평가사업이 없은데다. 외국의 평가자료마저 없어 객관적인 수준을 도저히 알수없었다」고 지적, 『교육내용의 낙후와 고립성을 탈피하기위해서 서둘러 학력평가를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키로했다』고 밝혔다.

중앙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를위해 우선 내년부터라도 전국수준에서 각급학교에대한 정기적인 학력평가사업이 추진될것이며 이평가는 지역별, 남녀별, 교과별, 국·공사립별로 실시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현재 수학과목만해도 美·日등 선진 19개국가가 참여한 국제적인 학력평가기구가 있으며 특히 과학교육평가기구에는 세계은행이 주관이돼 45개국이참여하고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들기구에 곧가입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내년2월 濠洲캔버러市에서 열리는 과학교육평가를위한 예비회의에 우리대표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평가제가 도입되면 국내각급 학교학생들의 국제적인 수준이 밝혀지고 이에따른 교과과정의 취약점과 함께 객관적인 교과과정별 목표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私財로 도서·문화관竣工

朝陽商船 朴南奎씨 5억투입

◇朝陽商船대표朴南奎

朝陽商船 대표 朴南奎씨 (62)가 사재5억원을들여 시공한 密陽도서관과 문화관이 22일상오 경남密陽郡密陽邑內1洞에서 준공됐다.

朴씨가 고향의 문화창달을 위해 사재를들여 지난해12월 23일 시공한 이도서관과 문화관은 대지3백65평에 연건평3백60평의 지상3층 지하1층건물로 도서관에는 1만권의장서와 4백명을 수용할수있는 열람실을 구비했으며 문화관은 2백명을 수용할수있는 규모이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해온 朴씨는 이밖에는지난64년 고향인 密陽邑內1洞에 密陽郡노인회관을지어 희사한것을 비롯 지난해부터密陽郡내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는등 고향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萬景峰號 또向日

【서울=聯】北傀의 對日공작선 만경봉호가 제1백85차 北送교포들을 수송하기위해 日本을 향해 元山을 떠났다고 北傀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이번에 北送될 교포들의 수등 구체적인 내용은 더이상 밝히지않았다.

颱風 클라라 홍콩쪽 접근

중앙관상대는 21일 상오3시현재 20호태풍 클라라가臺灣남서쪽 3백㎞해상에서 매시 24㎞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臺灣부근과남지나해상을 지나는 외항선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했다.

구독신청 (416) 533·2361

領海침범日船나포

莞島앞바다서 북어 마구잡아

【莞島=聯】전남莞島郡당국은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본어선1척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21일상오 밝혔다.

전남 莞島군청소속 어업지도선 莞島9호 (단속반장 金安雄·42)는 지난 20일하오 해역을 순시중 선원7명을태운 일본선적 若榮丸 (19·8톤·선장 只田市治·48)이 낮12시께 莞島郡青山面佛斤島남방5백m해상에서 북 8백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후 돌아가는 것을 적발, 하오4시께 莞島港으로 예인, 영해침범및 불법어로경위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나선 莞島郡은 20일밤11시께 若榮丸의 선장只田治씨로부터 우리「영해를 침범했다」는 시인서를받아냈다는데 이 배의 선원7명은 현재 해경의 보호를 받으며 若榮丸에서지내고있다.

前국회의원 林甲守씨

7대국회의원을 지낸 林甲守씨(사진)가 19일하오10시30분 서울江南區新沙洞136의6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61세.

발인은 22일 상오10시 자택에서, 장지는 경기 城南공원묘지. ☎⑥8069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아빠, 방금 아주 거창한 로크음악 연주회에 갔다왔어요!" "우린 최고의 자릴 잡았죠… 스피커 바로 앞에말예요!" "청각을 상하진 않았을까?" "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流星의 賦 <189>

明暗⑨

李炳注作 李友範畵

직무에 충실하려 하면 동료의 시기를 받고, 동료의 시기를 받지않고 그들과 어울리려면 해이한 기강 속에 휩쓸려 젖어들어야 하는 판이니 홍계남의 비위에 맞을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다 사용(司勇)도 하나의 벼슬이라고,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질시(嫉視)가 심했다.

『저건 동인의 연줄인가, 서인의 연줄인가』

하고 숙덕이는 말이 들리기도 했다.

모처럼 얻어진 자리였지만 오래 지탱할것 같지 않았다. 홍계남은 홍섬민이 출중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던 이순신을 찾아보기로하고 어느날 훈련원으로 갔다. 병술년도 저물어 가는 겨울 날의 저녁나절이었다.

훈련원 앞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군졸4、5명이둘러서서 잡담을하고 있었다. 기강이 해이한것은 매양마찬가지였다.

계남이 가까이로 가자 군졸의 하나가 물었다. 계남의 복색을 보고 알았던 모양으로

『보아하니 오위의 사용님이신데 무슨일로 오셨소』

했다. 계남이 대답대신 물었다.

『봉사에 이순신이란 어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봉사 이순신?』

그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뚱했다. 그리고 하는말이—

『그런 봉사없는데요』

그러자 모두들 이순신이란 이름은 들도보도 못했다고 했다. 계남은 무안을 당한 기분으로 노려보고 있다가

『한번 잘 생각해보라』

고 했다. 홍섬민이 터무니 없는 소릴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훈련원에 봉사가 몇이나 된다고 그래요。 심봉사、노봉사 둘 밖에 없는데요』

하고 한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상한군』

계남이 혼잣말을 했다.

그때 한구석에 쭈구리고 앉아 말이 없던 노군졸 (老軍卒)이 입을 열었다.

『삼년 전쯤에 그런 봉사가 있었지』

『그럼 지금 어디에 있읍니까』

『재작년 함경도로 가서 참군(參軍)이 되었는데 부친상(父親喪)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상을 당했으면 관직에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재작년에 당상을 했으면 탈상 때가 되지 않았는가.

홍계남이 아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물러서 나오는데 아까의 그 늙은 군졸이 따라나오며 물었다.

『그 어른의 소식을 꼭 알고 싶수?』

『그렇소』

『그럼 날 따라 오시오。 이참군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아오』

그 늙은 군졸이 계남을 데리고 간 곳은 훈련원에서 지척인 남정동(籃井洞)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다.

『이참군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하고 노군졸이 말하자 방안에 인기척이 있고 관솔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이 수상이라고 하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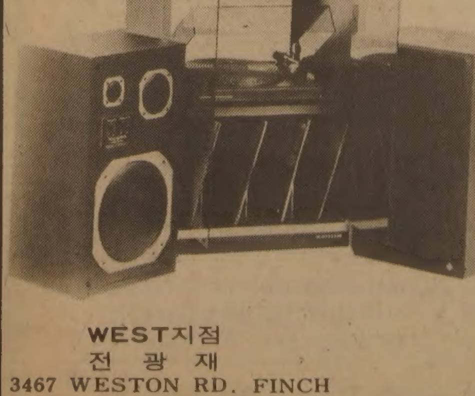
나이는 쉰이 넘었을까, 희미한 불빛으로도 병자임이 완연했다.

계남은 썰렁한 방에 꿇어 앉아 통성명을 하고 자기가 찾아온 뜻을 공손하게 아뢨다.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TELEF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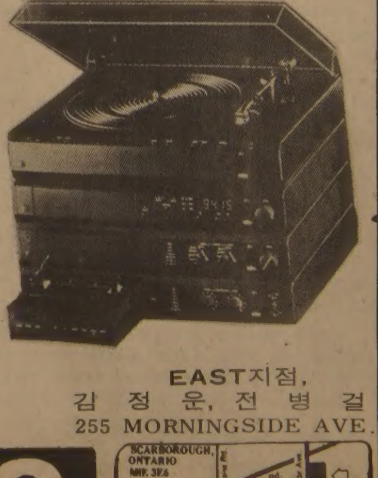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